

Start-up Trend Report 2022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2

opensurvey



Contents

Part.1 조사 개요

Part.2 조사 결과 요약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Part.1

조사 개요

조사 설계

조사 명칭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2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정보기술/지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자 인식 및 현실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됨

조사 대상	1) 창업자 200명 대상 : 창업자/공동창업자 (리멤버의 창업자 Pool 활용) 연차 : 창업 3년 이내 67명, 4년-5년차 71명, 6년차 이상 62명
	2) 스타트업 재직자 250명 대상 : 국내 스타트업/벤처 기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250명 대상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국내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200명 대상 :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총 900명

조사 기간	2022년 9월 19일 ~ 9월 23일
-------	-----------------------

Part.2

조사 결과 요약

스타트업 창업자의 생각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는 약 54점으로 투자 위축 및 경기 침체로 인해 분위기 저하를 인식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투자/지원 또한 부정적 분위기를 체감하게 합니다. 2023년에도 경제위기 가능성 및 경제 상황 악화가 전망되어 지금의 분위기/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할 평가는 62점으로 작년 대비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가 보다 시급하게 느껴지며, 상대적으로 우수 인력/인재 확보, 국제화 지원에 대한 니즈는 감소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세제 혜택/세금 감면 및 금융 규제, 노동/노무 관련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샌드박스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 네이버가, 공공기관 중에서는 KISED(창업진흥원)이 가장 스타트업 투자/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입주/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입니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10명 중 약 7명은 실제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절반가량이 흑한기 이슈로 인해 투자 유치 계획 일정 앞당기거나 미루는 선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로 기업 비용 절감, 흑자 사업 집중, 투자 유치 계획 조정,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경제위기/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위축 우려

#기반자금 확보/투자 활성화/규제 완화 시급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이슈 민감도 높음

#비용절감, 흑자사업집중, 투자유치계획조정, 매출다각화전략 마련

스타트업 재직자의 생각

49.2%가 스타트업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 워라밸 보장 측면은 만족스러우나, 낮은 기업 인지도/재정적 보상, 불안정한 조직 비전/전략, 적은 복리/복지 혜택 측면은 주요한 불만족 요인으로 꼽힙니다.

스타트업 재직자의 34.8%가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였으며,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으며, 주도적으로 도전적인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리즈 A~B단계의 스타트업 근무 추천이 가장 많았습니다.

향후 이직 시 복리/복지 혜택, 재정적 보상이 높은 대기업을 가장 선호하나(22%), 대기업 다음으로는 벤처/스타트업(16.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은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업무/커리어 개발, 조직문화 측면에서 선호됩니다.

스타트업 재직자가 빠른 성장세를 체감하고,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기업은 토스,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등이 꼽힙니다.

스타트업 재직자의 58%가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하였다고 인식하는 비중(9.2%) 대비 6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스타트업 재직자 10명 중 4명은 벤처투자 혹은 이 이슈로 인해 지속 근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명 중 1명은 스타트업 근무에 전반적으로 만족

#스타트업 이직 매력 요소는 성취감, 업무/커리어 개발, 조직문화

#최근 스타트업 투자 시장 위축 체감하며, 지속 근무에 영향

대기업 재직자의 생각

대기업 재직자의 54%가 올해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21년 대비 +13%p). 창업을 고려한 경우, 주로 이커머스/유통, 농식품, 부동산/프롭테크, 여행/레저 업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 고려율이 높은 편입니다. 스타트업에 대해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업무/커리어 개발, 재정적 보상,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 조직/비전 전략, 워라밸 보장 등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대부분 시리즈 A~B 투자 단계 이상 기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며, 금융/핀테크/블록체인, 이머커스/유통 분야로의 이직 희망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여전히 워라밸 비보장,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 낮은 재정적 보상에 대한 우려가 다수의 대기업 재직자에게 스타트업 이직의 심리적 허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기업 재직자 43.6%가 작년 대비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성장 평가(14.4%) 대비 3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대부분 벤처투자 시장 호한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거나(48.4%), 들어보았더라도 잘 알지 못하는(47.6%) 비중이 높습니다. 호한기를 인지하는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 스타트업 이직 고려 시 금전적 보상, 성장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절반 이상이 창업을 고려, 4명중 1명은 스타트업 이직을 고려

#성취감, 커리어 개발은 매력적

#워라밸, 불안정성, 낮은 보상은 마이너스

#스타트업 투자 시장 위축 느끼나, 호한기 이슈는 잘 모름

취업 준비생의 생각

취업준비생의 51%가 올해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콘텐츠/미디어, 패션/뷰티, 농식품 업종 창업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은 평소 스타트업 정보를 탐색하며, 주로 채용/기업정보 앱/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약 4명은 최근 1년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한 적이 있으며, 주로 업무/커리어 개발, 워라밸 보장,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조직 문화,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 측면에서 선호됩니다.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고려하는 취업준비생의 36.9%는 시리즈 A~B 투자 단계의 기업을, 26.2%는 시리즈 C 이상 투자 단계의 기업을 선호하며, 취업 희망 스타트업 분야로는 콘텐츠/미디어 분야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60.5%가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이슈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했으며, 알고 있더라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34.5%). 그러나 인지 후에는 흑한기 이슈가 절반 이상의 창업 의향자 및 스타트업 취업 고려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취업 고려 시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반이 창업을 고려, 10명 중 4명은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

#창업/취업을 한다면 콘텐츠/미디어 분야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인지 시 창업/취업 영향 존재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창업자들이 평가한 최근 스타트업 전반 분위기는 53.7점으로, 투자 위축 및 경기 침체로 인해 분위기 저하를 인식함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평균 53.7점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주로 투자 위축/감소, 경기침체, 자금시장 경색 등의 측면에서 최근 스타트업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부정 평가 이유

투자/시장 상황	50.0
• 투자 위축/감소	28.0
• 자금 시장 경색	10.5
• 투자유치가 어려움	3.5
경제/금리 상황	23.0
• 경기침체	14.5
• 금리인상	5.5
• 글로벌 경제상황 악화	3.5
스타트업 운영	21.5
• 인재확보 어려움	4.0
• 생존 압박	3.0
• 스타트업 파산/폐업	3.0

"투자 분위기가 매우 저조하며 정부도 벤처 투자에 소극적임"

"수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코로나 장기화, 미국/중국/러시아의 적대 상황에 따른 경제 불안전망 등에 따라 폐업 또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스타트업도 많음"

"과거에 비해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도 줄어들고 경제 및 국제정세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인력비를 대기업이 다 올려놓아서 인력비 감당이 너무 힘들고 주 52시간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 및 비용이 너무 나갑니다. 52시간 체크도 프로그램 써야 하고 다 비용입니다. 인력비는 특히 너무 올라서 감당이 어려운 상황"

"스타트업 투자 자본이 얼어붙으면서 작년 대비 월등히 낮은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각 스타트업은 긴 호흡으로의 사업 전개나 적극적 인력 충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Base: 창업자 (n=200), Unit : %] *부정 평가 이유 : 3%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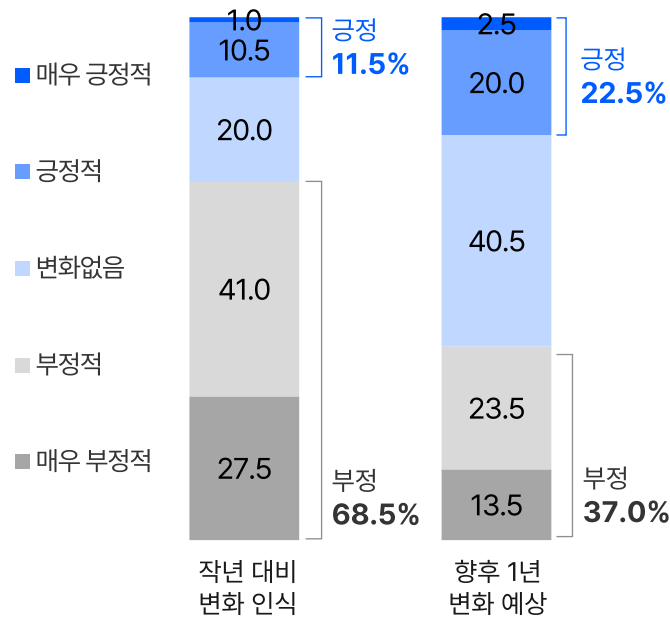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 및 전망

작년 대비 미온적인 VC 투자/지원에서 부정적 분위기를 감지하며, 향후에도 경제 악화 전망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68.5%가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느끼며, 특히 이전보다 미온적인 벤처캐피탈의 투자/지원에서 부정 변화를 가장 많이 체감합니다.

향후 1년 이내 변화에 대해 40.5%는 2023년에도 지금의 분위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37%는 보다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긍정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부정 전망이 높습니다. 현상 유지/부정 전망 이유로는 경제위기 가능성/경제 상황 악화를 가장 많이 꼽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부정 이유

- 1위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투자 및 지원 (57.1%)
- 2위 미흡한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27.7%)
- 3위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저하 (26%)
- 4위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지속 (25.4%)
- 5위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저조 (25.4%)

긍정 이유

- 1위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인식 확산 (60.9%)
- 2위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52.2%)
- 3위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개선 (26.1%)

향후 전망

- 1위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 (28.4%)
- 2위 투자 위축 (16.1%)
- 3위 정부 지원 감소 (12.9%)
- 4위 금리인상 (11%)
- 5위 글로벌 경기둔화 (9.7%)

- 1위 경제회복/활성화 (22.2%)
- 2위 자금 유입 확대 (22.2%)
- 3위 사회적인식 개선 (11.1%)

[Base: 창업자 (n=200), Unit : %]

정부 역할 평가

창업자가 평가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은 62.1점,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평균 62.1점을 주었습니다.

창업자의 35.5%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급 개선 과제로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를 선택하였으며, 작년 대비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제혜택/세금감면, 금융규제, 노동/노무 관련 규제, 개인정보보호법, 샌드박스 관련 규제 등의 완화 필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 평가



정부 시급 개선사항 1순위



정부 규제 완화 선호 분야

세제혜택/세금감면 (7.4%)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은 감면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스타트업들을 보다 자유롭게 감면/지원해준다면 훨씬 도움될 것 같습니다"

금융 규제 완화(6.4%)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기준과 규제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노무 관련 규제 완화 (6.4%)

"노동법 관련 규제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신규 채용이 부담됩니다"

*정부 시급 개선사항 : (-) 2021년 해당 보기 미제시 / 1순위 기준 정렬

[Base: 창업자 (n=200), Unit : %]

선호/적극적 기관 및 기업

‘프라이머’, ‘알토스벤처스’, ‘카카오벤처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창업자가 꼽은 각 분야 선호 1위 스타트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사기업 ‘카카오’, 공공기관은 ‘KISED(창업진흥원)’으로 인식

액셀러레이터 중 ‘프라이머’, 벤처캐피탈 중 ‘알토스벤처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중 ‘카카오벤처스’를 가장 선호합니다.

입주/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로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삼성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호 액셀러레이터/VC/CVC/창업 지원 센터 1순위

스타트업 지원 적극적 기관 인식 1순위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VC)	창업지원 센터	기업	공공기관
1위	프라이머 (11.5%)	알토스벤처스 (16.5%)	카카오벤처스 (22.0%)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1.0%)	카카오 (28.0%)	KISED(창업진흥원) (24.0%)
2위	블루포인트파트너스 (10.0%)	소프트뱅크벤처스 (13.5%)	네이버 D2SF (12.5%)	서울창업허브 (8.0%) 창조경제혁신센터 (8.0%)	네이버 (25.0%)	SBA(서울산업진흥원) (15.0%)
3위	스파크랩 (7.5%)	한국투자파트너스 (6.0%) KB인베스트먼트 (6.0%)	삼성벤처투자 (8.5%)	마루180 (아산나눔재단) (7.5%)	삼성 (9.5%)	CCEI(창조경제혁신센터)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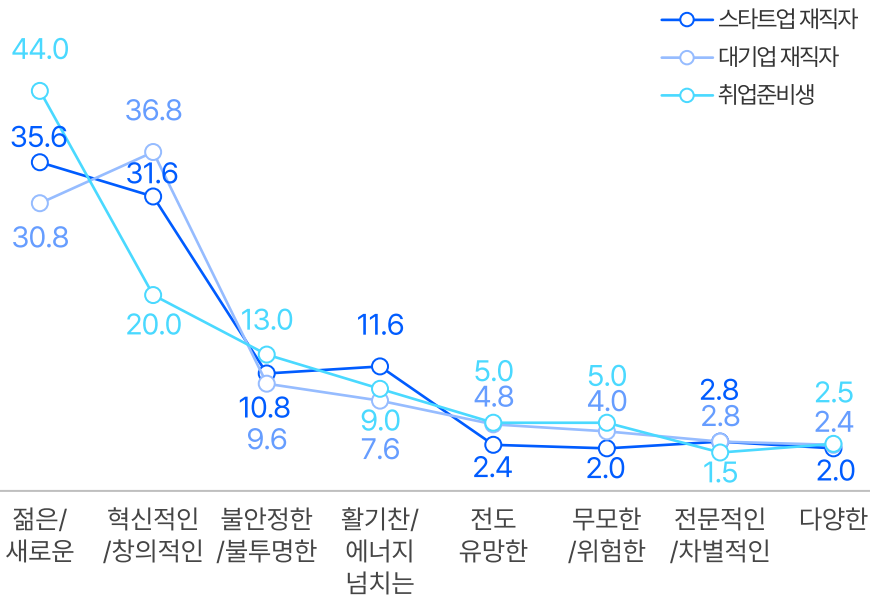
스타트업 전반 인식

스타트업은 '젊은/새로운', '혁신적인' 이미지이며, 재직자 사이에서 가장 빠른 성장으로 인식되는 국내 스타트업은 '토스'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준비생 모두 스타트업을 '젊은/새로운', '혁신적인/창의적인' 이미지로 주로 인식합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으로 스타트업 재직자/대기업 재직자는 '토스(23.2%, 14.0%)'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취업준비생은 '배달의민족(8.5%)'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연상 이미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준비생
(Base)	(250)	(250)	(200)
토스	23.2	14.0	5.5
배달의민족	9.2	6.4	8.5
당근마켓	8.0	4.0	3.5
카카오	4.0	7.6	3.5
마켓컬리	2.4	2.8	5.0
오늘의집	1.6	1.6	1.5
쿠팡	1.6	2.0	1.0
야놀자	2.0	1.2	1.0
없다/모름	17.2	30.8	42.5

일하는 방식 알고 싶은 스타트업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준비생
(Base)	(250)	(250)	(200)
토스	23.2	8.8	4.5
배달의민족	10.4	6.4	5.5
당근마켓	6.8	4.8	6.0
카카오	3.2	10.0	3.5
마켓컬리	2.8	1.6	6.0
쿠팡	1.6	4.4	1.5
야놀자	3.6	1.2	1.5
네이버	1.2	4.4	0.5
없다/모름	20.8	38.4	47.0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대기업 재직자 (n=250) / 취업준비생 (n=200) ,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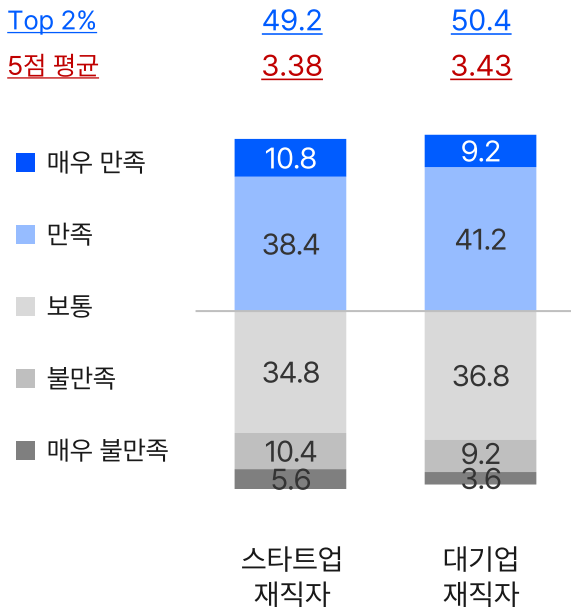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현 재직 직장 근무 만족도

스타트업 재직자와 대기업 재직자의 만족도는 유사하며, 스타트업은 '자율/수평적 조직문화', 대기업은 '복리/복지 혜택'에 만족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모두 절반 가량(각 49.2%, 50.4%)이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5점 척도 Top 2%: 만족+매우 만족 기준)
 스타트업 재직자는 주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에 만족하는 반면, 대기업 재직자는 복리/복지 혜택, 높은 기업 인지도에 만족합니다.
 한편, 스타트업은 낮은 기업 인지도, 대기업은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 인상률이 불만족 요인 1위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재직 직장 근무 만족도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만족 이유		
1위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42.4%)	복리/복지 혜택 (47.6%)
2위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 (35.6%)	기업 인지도 높음 (42.8%)
3위	워라밸의 보장 (35.2%)	워라밸의 보장 (36.4%)
4위	업무 및 커리어 개발 (27.6%)	높은 재정적 보상 (33.6%)
5위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25.2%)	업무 및 커리어 개발 (23.6%)
불만족 이유		
1위	낮은 기업 인지도 (36.8%)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 인상률 (46.0%)
2위	낮은 재정적 보상 (34.4%)	낮은 재정적 보상 (32.0%)
3위	불안정한 조직의 비전 및 전략 (33.6%)	유연하지 못한/느린 의사결정 구조 (30.8%)
4위	적은 복리/복지 혜택 (32.4%)	공정하지 않은 업무/성과 평가 (27.6%)
5위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 인상률 (23.6%)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 (27.6%)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대기업 재직자 (n=250), Unit : %/5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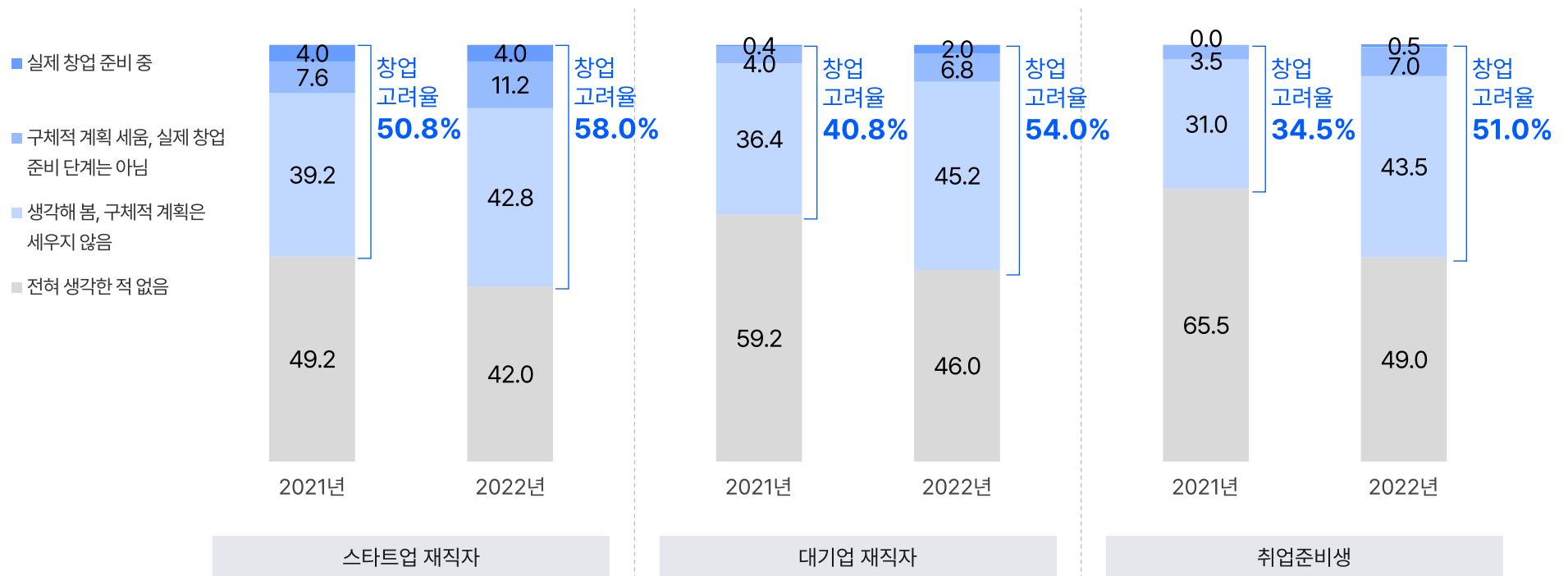
* 만족/불만족 이유 : 1+2+3순위 기준

창업 관련 현황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준비생 모두 절반 이상이 올해 창업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며, 작년 대비 고려율 증가

2022년 동안 스타트업 재직자의 58.0%, 대기업 재직자의 54.0%, 취업준비생의 51%가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작년(2021년) 대비 각각 7%p, 13%p, 17%p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 취업준비생은 특성상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취업 고려율이 증가했을 수 있음)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대기업 재직자 (n=250) / 취업준비생 (n=200) , Unit : %]

스타트업 이직/취업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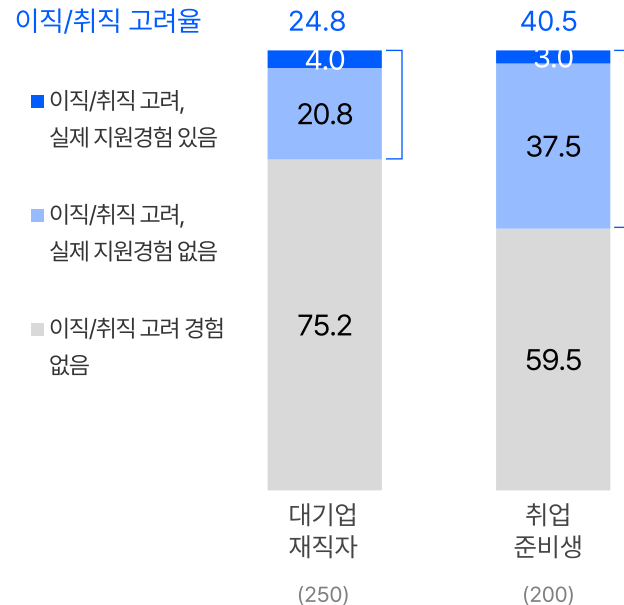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대기업 재직자 25%, 취업준비생 41%가 스타트업 이직/취직을 고려함

지난 1년 동안 대기업 재직자 24.8%, 취업준비생 40.5%가 스타트업으로 이직 및 취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대기업 재직자는 '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을, 취업준비생은 '업무 및 커리어 개발이 가능한 점'을 스타트업의 매력 요소 1순위로 각각 꼽았습니다.

반면, 스타트업 비고려 이유로는 '워라밸 보장 어려움',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 인식 측면이 대기업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에서 모두 2순위 이내로 응답되었습니다.

최근 1년 스타트업 이직/취업 고려 여부



대기업 재직자

고려 이유

- 1위 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30.6%)
- 2위 업무 및 커리어 개발이 가능해서 (29.0%)
- 3위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신속 (25.8%)
- 4위 조직 비전/전략이 좋아서 (25.8%)
- 5위 높은 재정적 보상 기대 (25.8%)

비고려 이유

- 1위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서 (41.0%)
- 2위 조직 비전/전략이 불안정할 것 같아서 (38.3%)
- 3위 재정적 보상이 낮을 것 같아서 (33.5%)
- 4위 복리/복지 혜택이 적을 것 같아서 (23.9%)
- 5위 기업 인지도가 낮을 것 같아서 (21.8%)

취업준비생

- 1위 업무 및 커리어 개발이 가능해서 (41.7%)
- 2위 워라밸이 보장될 것 같아서 (36.9%)
- 3위 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32.1%)
- 4위 조직 문화가 마음에 들어서 (29.8%)
- 5위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신속 (27.4%)

- 1위 조직 비전/전략이 불안정할 것 같아서 (48.3%)
- 2위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서 (38.8%)
- 3위 재정적 보상이 낮을 것 같아서 (34.5%)
- 4위 회사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26.7%)
- 5위 업무/커리어 개발 쉽지 않을 것 같음 (19.8%)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 취업준비생 (n=200), Unit : %]

* 고려/비고려 이유: 1+2+3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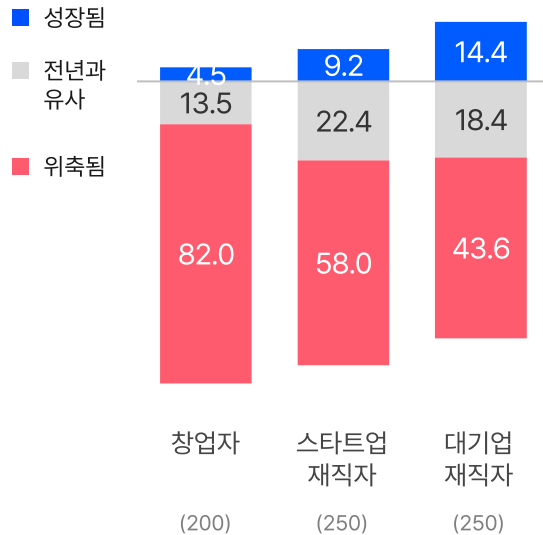
최근 스타트업 시장 현황 인식 및 평가

2022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전년 대비 위축되었으며, 스타트업 창업자가 벤처투자 시장 호한기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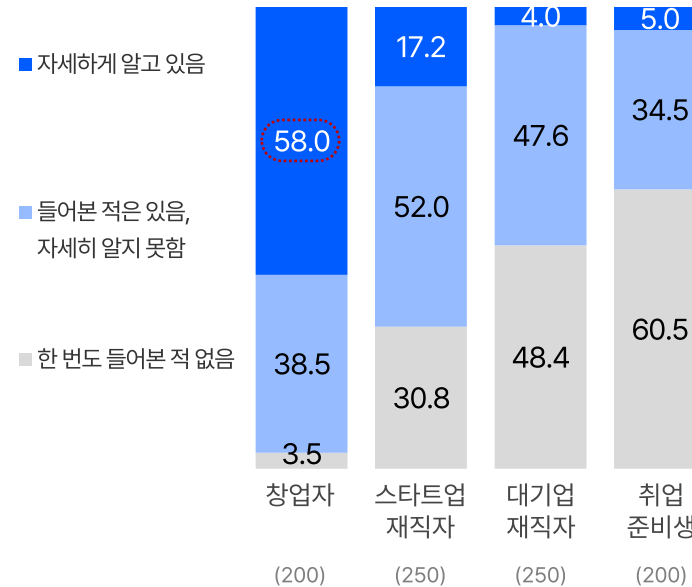
창업자의 82%, 스타트업 재직자의 58%, 취업준비생의 43.6%는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지난해 대비 위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자는 벤처투자 시장 호한기에 대한 인지 및 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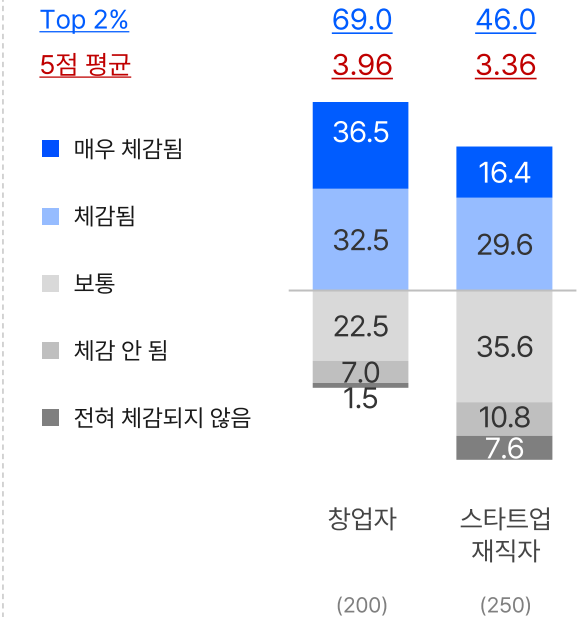
2022 스타트업 투자 시장 평가



벤처투자 시장 호한기* 인지



벤처투자 시장 호한기 체감



*벤처투자 시장 호한기란?

글로벌 규모의 유동성 위기,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스타트업 시장에 투여되는 투자금 자체가 줄어들거나 투자 시장이 보수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계 금융위기로 '벤처투자 시장 호한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ase: 창업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대기업 재직자 (n=250) / 취업준비생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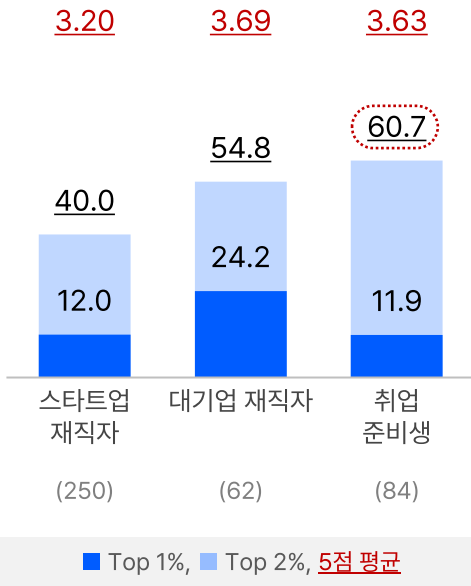
최근 스타트업 시장 현황 인식 및 평가

벤처투자 호한기 이슈는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에게 스타트업 취업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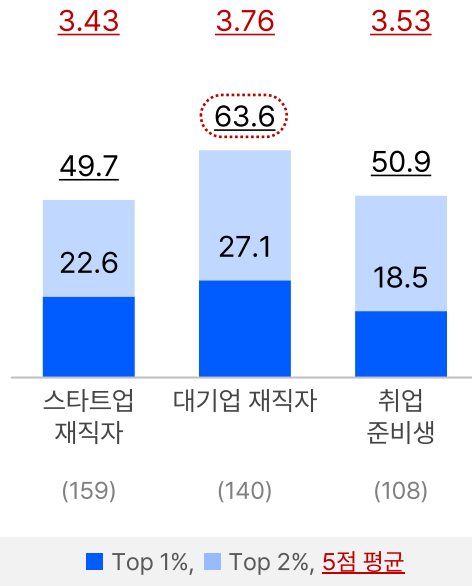
벤처투자 호한기 이슈는 스타트업 재직자 40%의 지속 근무, 대기업 재직자의 54.8%의 스타트업 이직, 취업 준비생의 60.7%의 스타트업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호한기 이슈로 인해 스타트업 이직/취업 시 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 '금전적 보상'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게 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호한기 이슈 지속근무/이직/취업 영향



창업 의향 영향



호한기 이직/취업 시 특별 고려 요소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 준비생
(Base)	(250)	(250)	(200)
기업의 성장 가능성	58.4	58.4	66.0
금전적 보상	61.2	61.2	44.5
기업의 투자/자금 유치 규모	36.0	37.6	40.5
복지	30.4	24.8	23.5
개발 기술/환경/인프라	16.8	21.6	23.0
조직문화	25.2	14.4	15.5
회사의 인지도/네임벨류	12.8	17.6	19.0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 및 창업자 철학	17.2	16.8	14.5
창업자 및 기업 인지도	8.4	15.6	12.5
개발자 규모	10.8	7.2	13.5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스타트업 이직/취직 고려자 / 창업 고려자, Unit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1. 창업자

규모 총 200명

대상 창업자/공동창업자 (리멤버의 창업자 Pool 활용)

연차 3년차 이하 67명(2019 ~ 2022년 창업)

4년-5년차 71명(2017 ~ 2018년 창업)

6년차 이상 62명(2016년 이전 창업)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창업자들이 평가한 최근 스타트업 전반 분위기는 53.7점으로, 투자 위축 및 경기 침체로 인해 분위기 저하를 인식함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평균 53.7점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주로 투자 위축/감소, 경기침체, 자금시장 경색 등의 측면에서 최근 스타트업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부정 평가 이유

투자/시장 상황	50.0
• 투자 위축/감소	28.0
• 자금 시장 경색	10.5
• 투자유치가 어려움	3.5
경제/금리 상황	23.0
• 경기침체	14.5
• 금리인상	5.5
• 글로벌 경제상황 악화	3.5
스타트업 운영	21.5
• 인재확보 어려움	4.0
• 생존 압박	3.0
• 스타트업 파산/폐업	3.0

- "투자 분위기가 매우 저조하며 정부도 벤처 투자에 소극적임"
- "수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코로나 장기화, 미국/중국/러시아의 적대상황에 따른 경제 불안전망 등에 따라 폐업 또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스타트업도 많음"
- "과거에 비해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도 줄어들고 경제 및 국제정세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력비를 대기업이 다 올려놓아서 인력비 감당이 너무 힘들고 주 52시간 제한 등 여러가지 구제 및 비용이 너무 나갑니다. 52시간 체크도 프로그램 써야 하고 다 비용입니다. 인력비는 특히 너무 올라서 감당이 어려운 상황"
- "스타트업 투자 자본이 얼어붙으면서 작년대비 월등히 낮은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각 스타트업들은 긴 호흡으로의 사업전개나 적극적 인력 충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Base: 창업자 (n=200), Unit : %]
*부정 평가 이유 : 3%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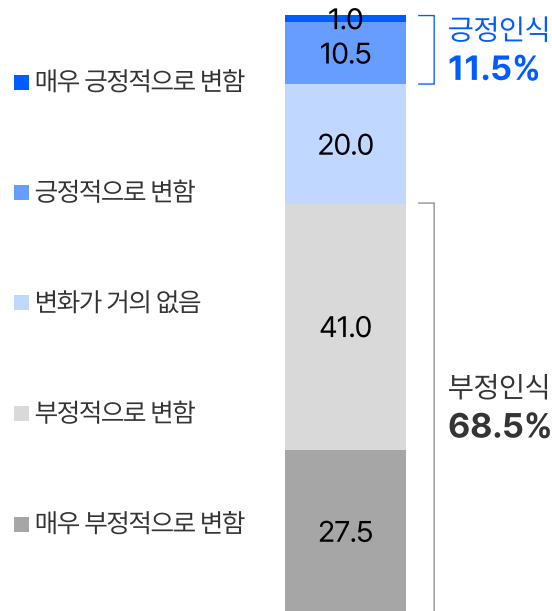
Q.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입니까? /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년(2021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10명 중 7명이 작년 대비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느끼며, 이전보다 미온적인 벤처캐피탈의 투자/지원에서 부정 분위기를 감지함

68.5%가 지난해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느끼며, 이전보다 미온적인 벤처캐피탈의 투자/지원에서 부정 변화를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작년(2021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부정 변화 인식 이유 (n=177)

•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투자 및 지원	57.1
• 미흡한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27.7
•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저하	26.0
•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지속	25.4
•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저조	25.4
•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유지	24.9
• 대기업,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정책 드라이브 실패	22.6
• 정부 및 공공부문의 인위적 정책 드라이브	18.1
•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미흡	10.2

긍정 변화 인식 이유 (n=23*)

•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	60.9
•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52.2
•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개선	26.1
•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	17.4
• 정부 및 공공부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17.4
•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확산	17.4
• 대기업,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13.0

*Small Base (n<30), [Base: 창업자 (n=200), Unit : %]
*부정/긍정 변화 이유: 1+2+3순위 기준 *10%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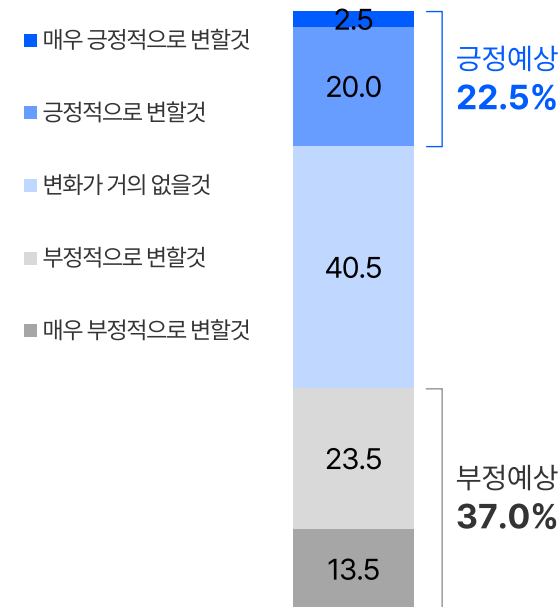
Q. 지난해(2021년)와 비교 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시나요?

향후 1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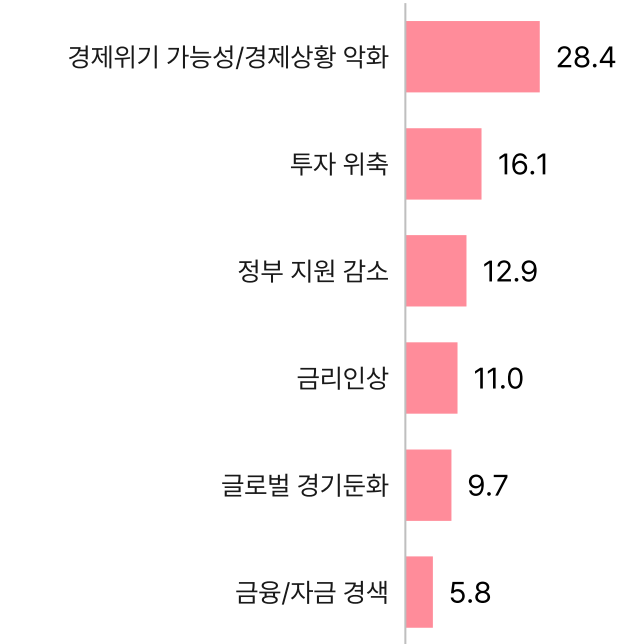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대부분 2023년에도 지금의 분위기/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

40.5%는 2023년에도 지금의 분위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37%는 지금보다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긍정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부정 전망이 높습니다. 현상 유지/부정 전망 이유로는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를 가장 많이 꼽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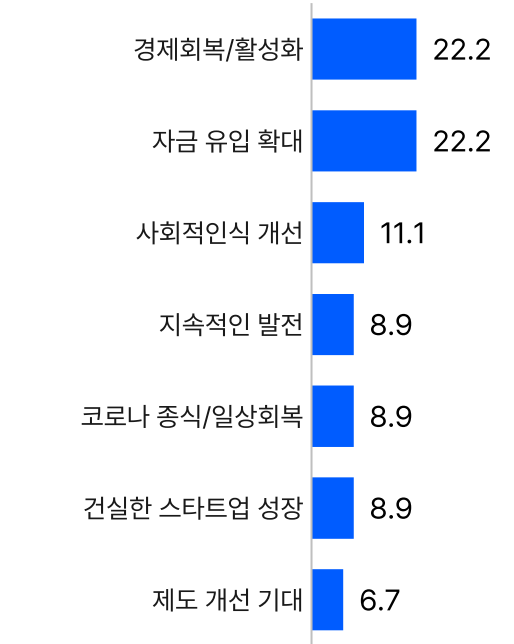
향후 1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예상



현상 유지/부정 변화 전망 이유 (n=155)



긍정 변화 전망 이유 (n=45)



*Small Base (n<30), [Base: 창업자 (n=200), Unit : %]
* 부정/긍정 변화 이유 5%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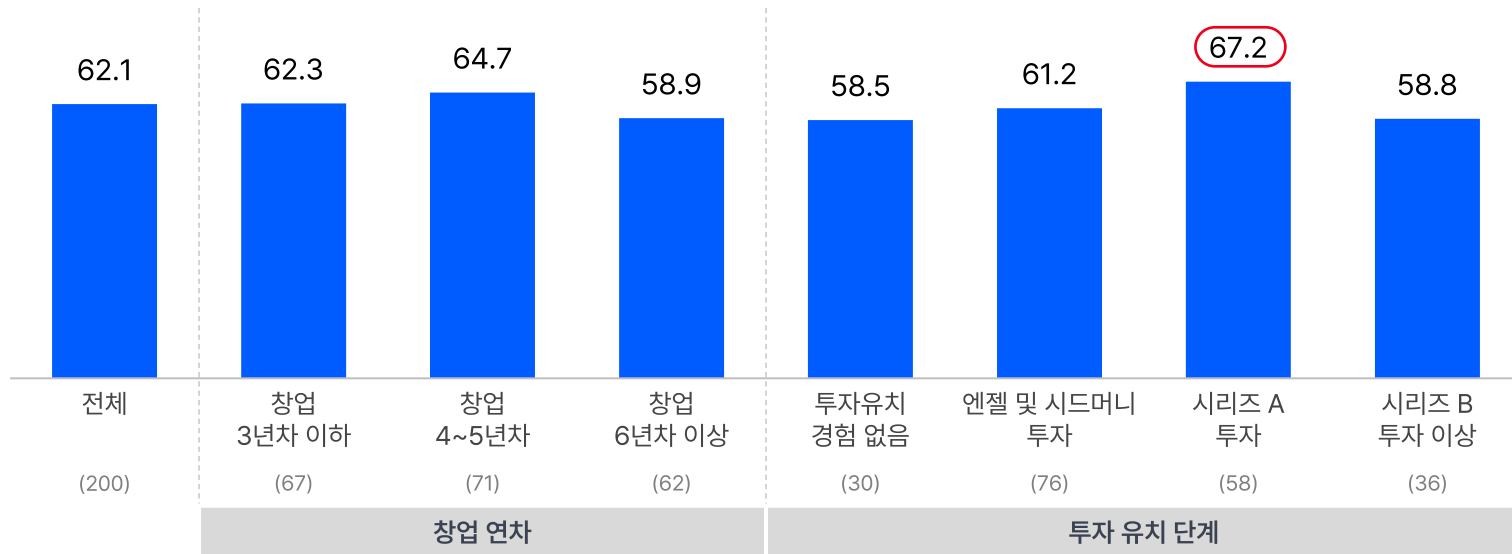
Q. 앞으로 일 년 후(2023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 평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62.1점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평균 62.1점을 주었습니다.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창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67.2점)를 내렸습니다.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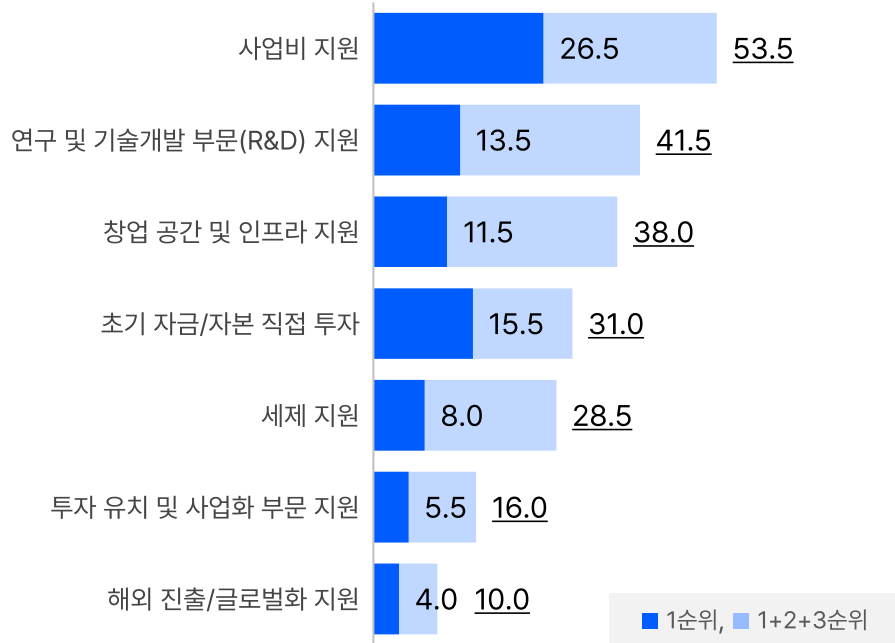
Q.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도움 정부정책

‘사업비 지원’을 가장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으로 인식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정부 정책으로는 사업비 지원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R&D 지원, 창업 공간 및 인프라 지원, 초기 자금/자본 직접 투자 측면이 응답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규제 완화/제도 개선, 투자/자금 지원 확대, 지원 활성화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도움 정부정책



추가 정부 역할 기대사항

•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8.5
• 초기 자금/자본 직접 투자	8.0
• 투자/자금 지원 확대	7.5
• 세제 지원	7.0
• 지원 활성화	6.5
• 운영자금 지원	6.0
• 사업비 지원	5.0
• 모태펀드 지원규모 확대	5.0
• 투자 유치 및 사업화 부문 지원	4.0
• 해외 진출/글로벌화 지원	4.0
• 인력지원	4.0

[Base: 창업자 (n=200), Unit : %]

Q.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정부가 어떤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정부 시급 개선점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관련 정부의 시급 개선 과제로 작년 대비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 요구가 증가함

창업자의 35.5%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급 개선 과제로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를 선택하였으며, 이는 작년 대비 19%p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우수 인력/인재 확보' 및 '국제화'에 대한 요구 비중은 감소하였습니다.



[Base: 창업자 (n=200), Unit : %]
* 2021년 해당 보기 미 제시 / 1순위 기준 정렬

Q.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서 정부가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완화가 시급한 정부 규제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 완화 필요한 정부 규제로 '세제혜택/세금감면', '금융 규제', '노동/노무 관련 규제' 등이 응답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급 과제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창업자는 주로 세제혜택/세금감면, 금융규제, 노동/노무 관련 규제, 개인정보보호법, 샌드박스 관련 규제 등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세제혜택, 인건비공제, 부가세혜택, 설비투자지원 등"

"스타트업에 대한 세무 관리 지원 또는 규제 완화 (신고 간소화, 절차 안내 등)"

"노동법 관련 규제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신규 채용이 부담됩니다"

"현장이 빠른 시장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 (이런 저런 제품을 하이브리드 하는 형태)의 제품이 나오는 경우 기본 법의 정의와 테두리에 갇혀서 불법이 되거나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중간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지자체별 자치하에 있는 환경규제 등에 대한 기준 통일 (지자체별 담당자별로 많은 차이가 있음)"

"샌드박스 법안 중 유예기간에 대한 보완 필요"

"각종 입찰 제도.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비교견적 요청이나, 기존 카테고리 내에 끼워 맞춰야만 하는 시스템. 유사 사업 간에 모두 다른 지원서류 포맷과 증명서 제출 등. 지원 사업 내 사업자등록 업종 제한 등"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기준과 규제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Base: 정부 시급 개선 과제로 '규제완화' 선택자 (n=94), Unit : %]
* 3% 미만 응답 절삭

Q. 완화가 필요한 규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운영 관련 어려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분야)

회사 운영과 관련해 자금 확보, 투자 관련, 성장 전략에 대한 조언 필요

스타트업 창업자는 주로 자금확보, 투자 관련, 성장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 4~5년차는 인사 관리 관련 도움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투자 단계 별로는 아직 투자 유치 경험이 없는 경우 자금 확보에 대한 조언을,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창업자는 해외/글로벌 진출에 대한 조언을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전체	창업 연차			투자 유치 단계			
		창업 3년차 이하	창업 4~5년차	창업 6년차 이상	투자유치 경험 없음	엔젤 및 시드머니 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이상
(Base)	(200)	(67)	(71)	(62)	(30)	(76)	(58)	(36)
자금 확보	19.5 / 46.0	56.7	39.4	41.9	66.7	52.6	36.2	30.6
투자 관련	21.0 / 42.5	47.8	33.8	46.8	43.3	51.3	39.7	27.8
성장 전략	12.5 / 38.0	35.8	32.4	46.8	26.7	43.4	43.1	27.8
조직 관리	11.5 / 31.0	31.3	33.8	27.4	23.3	32.9	24.1	44.4
전략 로드맵	10.5 / 29.0	35.8	22.5	29.0	23.3	32.9	31.0	22.2
인사 관리	5.5 / 24.0	16.4	35.2	19.4	16.7	18.4	29.3	33.3
경영 전반	10.5 / 22.5	17.9	26.8	22.6	30.0	18.4	27.6	16.7
해외/글로벌 진출	6.0 / 22.0	23.9	25.4	16.1	10.0	17.1	36.2	19.4
의사결정 구조/시스템	3.0 / 15.0	11.9	12.7	21.0	6.7	14.5	12.1	27.8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00), Unit : %]

* 배너는 1+2+3순위 기준

Q. 창업하신 회사 운영과 관련해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투자 유치 시 어려움

투자 유치 시 회사 가치(밸류에이션) 산정 및 제품 서비스 이해/설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투자 유치 상황에서 가장 크게 느낀 어려움으로 창업자의 38.5%는 회사 가치 산정과 인정, 31%는 제품 및 서비스 이해/설득을 꼽았습니다.

창업 연차 및 투자 유치 단계 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투자 유치 경험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자 정보 파악 측면의 어려움을 겪는 비중(26.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창업 연차			투자 유치 단계			
		창업 3년차 이하	창업 4~5년차	창업 6년차 이상	투자유치 경험 없음	엔젤 및 시드머니 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이상
(Base)	(200)	(67)	(71)	(62)	(30)	(76)	(58)	(36)
회사 가치 산정과 인정	38.5	40.3	42.3	32.3	30.0	46.1	31.0	41.7
제품 및 서비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31.0	23.9	38.0	30.6	20.0	36.8	32.8	25.0
투자자에 대한 정보 파악	14.0	14.9	9.9	17.7	26.7	5.3	19.0	13.9
투자유치 조건 협의	8.0	11.9	5.6	6.5	13.3	6.6	6.9	8.3
엄격한 자격요건과 심사 절차	8.0	9.0	2.8	12.9	10.0	5.3	8.6	11.1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00), Unit : %]

Q. 투자 유치 상황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려움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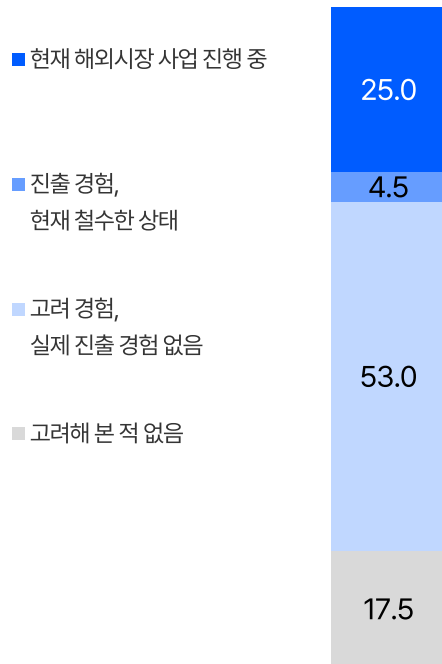
해외 시장 진출 고려/경험

스타트업 4곳 중 1곳은 현재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확보'가 가장 중요한 준비 요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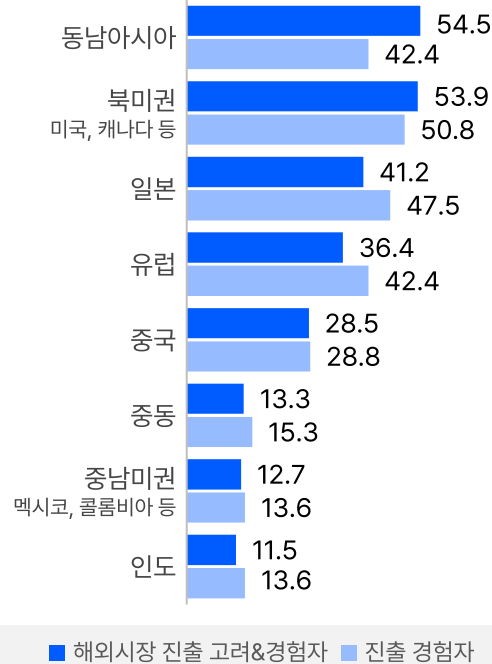
조사에 응한 전체 창업자의 25%가 현재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주로 동남아시아, 북미, 일본,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자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확보', '유통망/판로 개척 및 확보', '현지 시장 정보 파악'을 중요한 준비 요소로 꼽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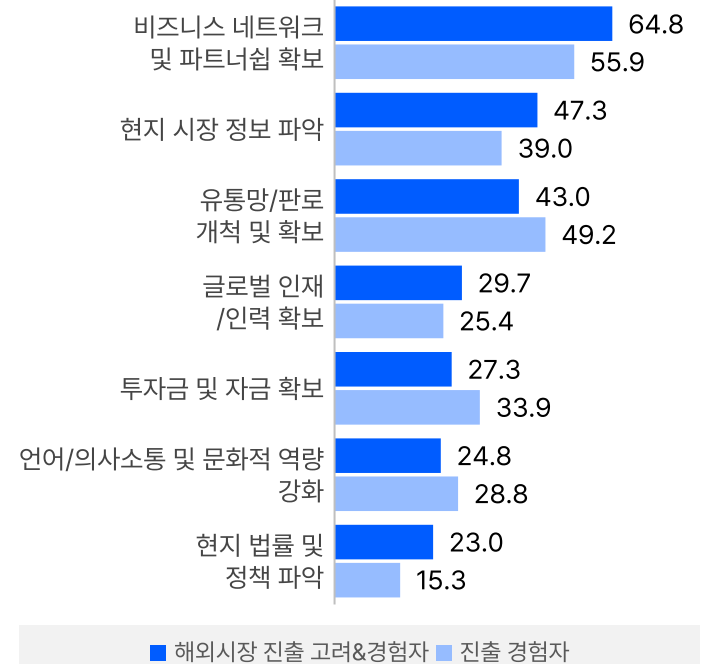
해외 시장 진출 고려/경험



진출/고려 해외 지역



해외 진출 시 중요 준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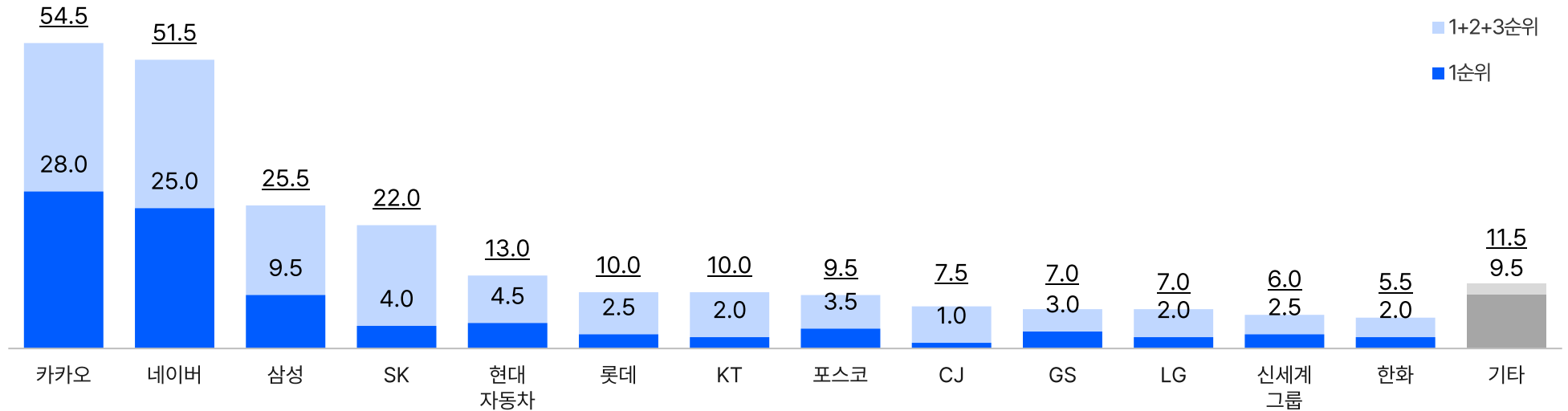
[Base: 창업자 (n=200) / 해외시장 진출 고려&경험자 (n=165) / 해외시장 진출자 (n=59), Unit : %]

Q. 창업 회사의 해외 시장 진출의 고려/경험 여부 및 지역은 어디인가요? /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스타트업 투자/지원 적극 기업 인식

창업자들이 꼽은 스타트업 투자/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카카오', '네이버'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양대 산맥으로 꼽혔으며, 뒤를 이어 삼성, SK, 현대자동차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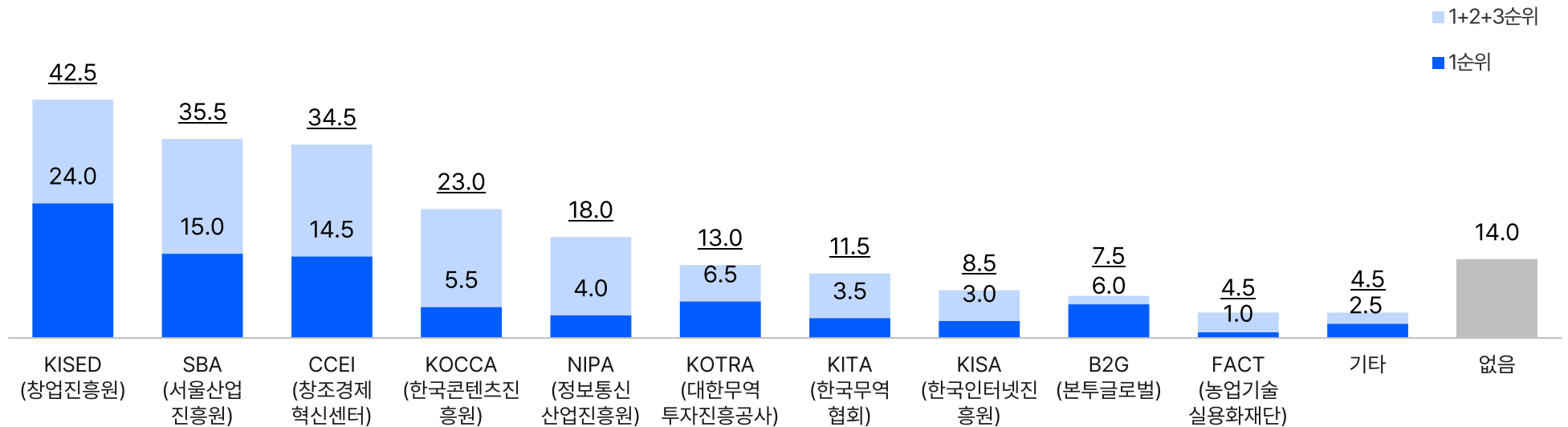
[Base: 창업자 (n=200), Unit : %]
* 1+2+3순위 기준 5% 미만 응답 절삭

Q.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 투자/지원 적극 공공기관 인식

공공기관 중 'KISED(창업진흥원)', 'SBA(서울산업진흥원)', 'CCEI(창조경제혁신센터)'이 스타트업 투자/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인식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공공기관으로는 'KISED(창업진흥원)', 'SBA(서울산업진흥원)', 'CCEI(창조경제혁신센터)'이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Base: 창업자 (n=200), Unit : %]
* 1+2+3순위 기준 4%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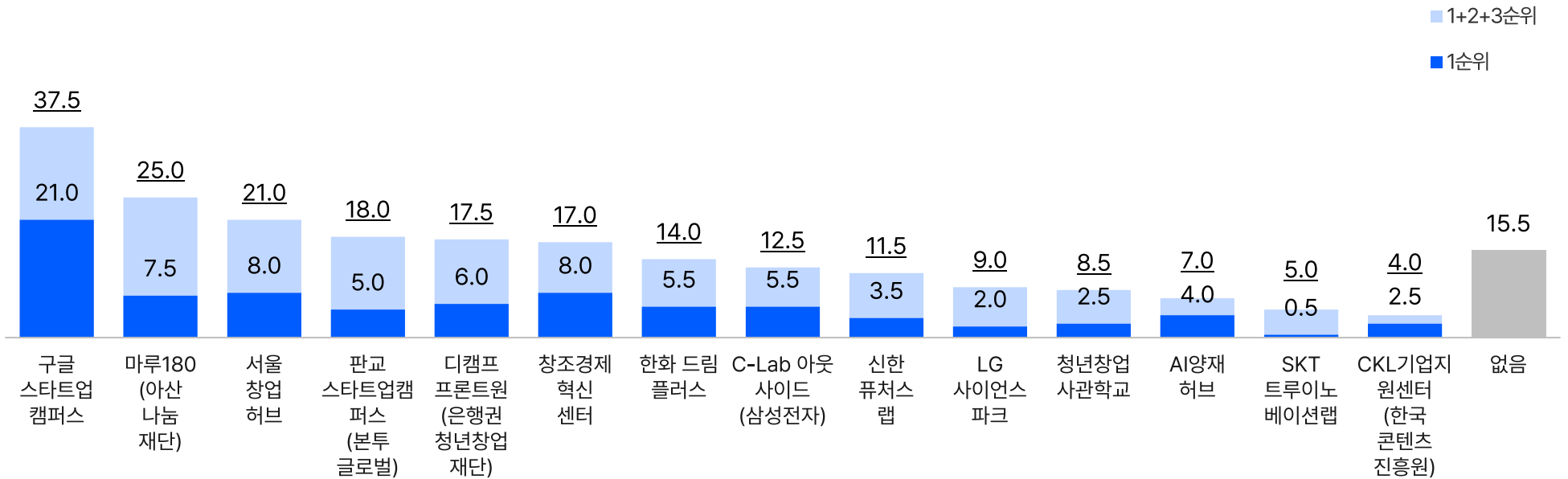
Q.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공공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입주/활용 희망 창업지원센터

가장 입주/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조사에 참여한 창업자의 21%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를 가장 입주/활용하고 싶은 곳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마루180, 서울창업허브, 판교스타트업캠퍼스, 디캠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응답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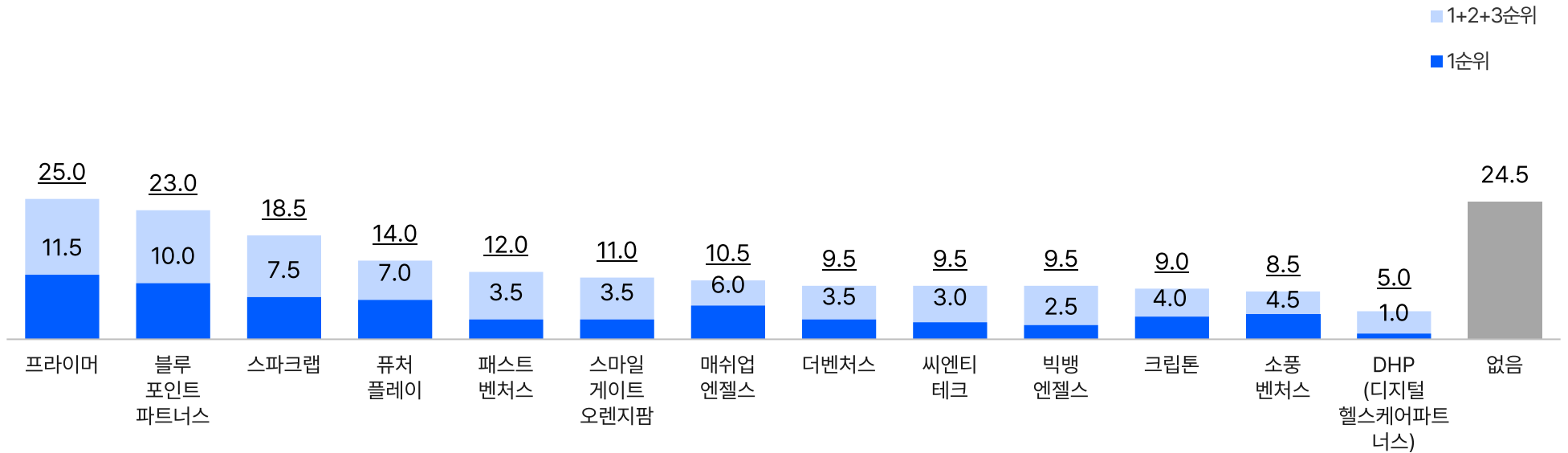
[Base: 창업자 (n=200), Unit : %]
* 1+2+3순위 기준 4% 미만 응답 절삭

Q. 가장 입주/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는 어디인가요?

선호 액셀러레이터

가장 선호하는 액셀러레이터는 '프라이머',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액셀러레이터로는 프라이머,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스파크랩, 퓨처플레이 등이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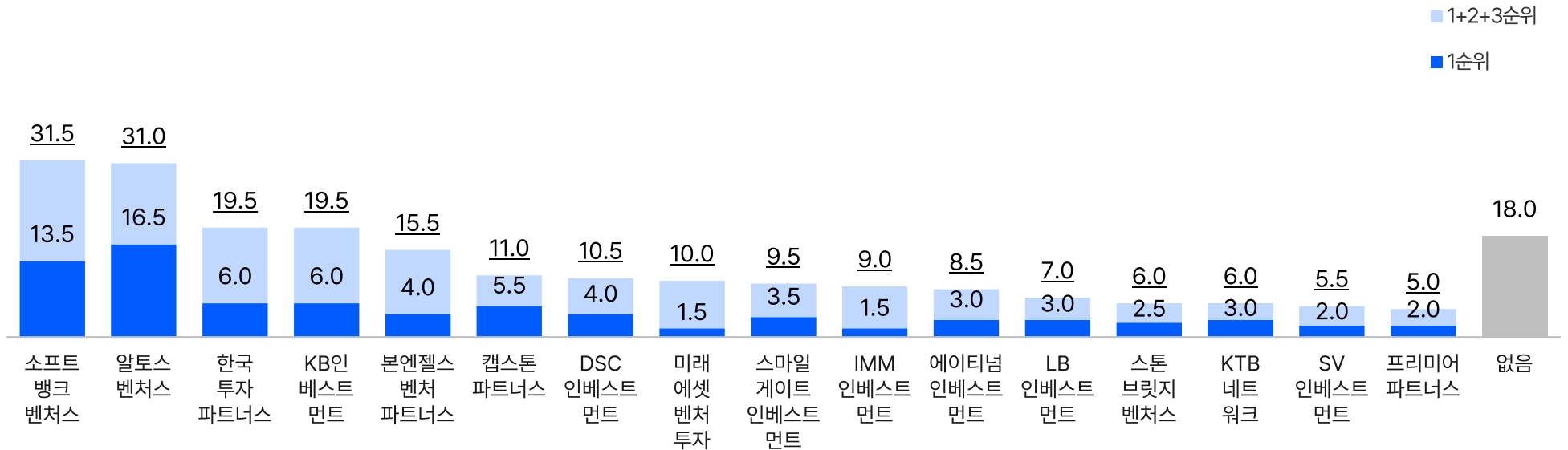
[Base: 창업자 (n=200), Unit : %]
* 1+2+3순위 기준 5% 미만 응답 절삭

Q. 가장 선호하는 액셀러레이터는 어디인가요?

선호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 중에서는 '소프트뱅크벤처스', '알토스벤처스'를 가장 선호

창업자의 16.5%가 알토스벤처스를, 13.5%가 소프트뱅크벤처스를 가장 선호하는 벤처캐피탈로 선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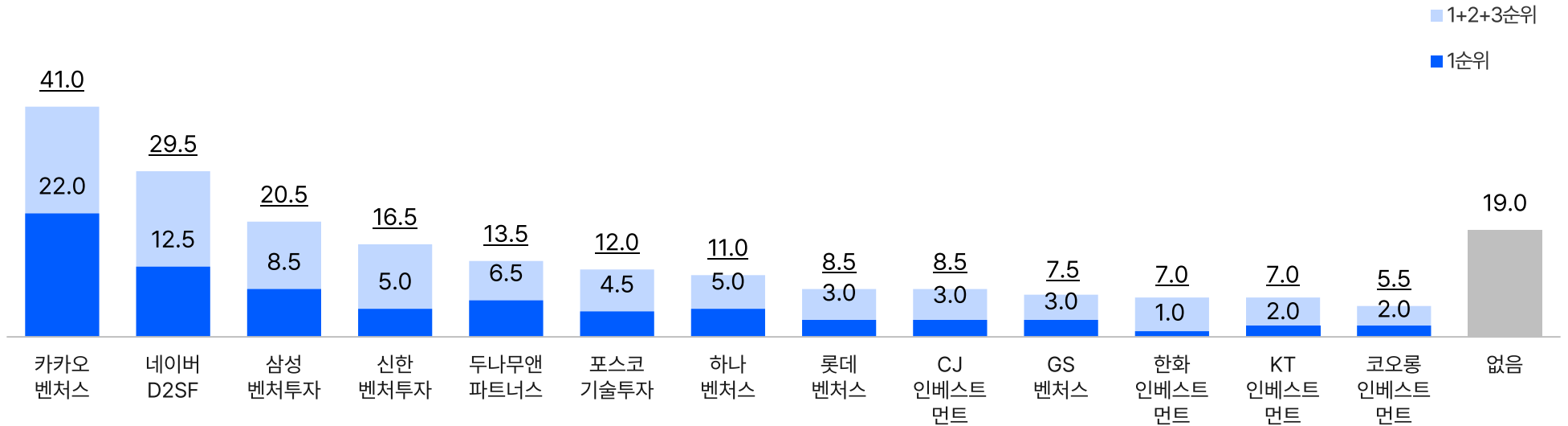
[Base: 창업자 (n=200), Unit : %]
* 1+2+3순위 기준 5% 미만 응답 절삭

Q. 가장 선호하는 벤처캐피탈(VC)은 어디인가요?

선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창업자들이 꼽은 가장 선호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은 '카카오벤처스'

선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로 카카오벤처스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뒤를 이어 네이버 D2SF, 삼성벤처투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Base: 창업자 (n=200), Unit : %]
* 1+2+3순위 기준 5%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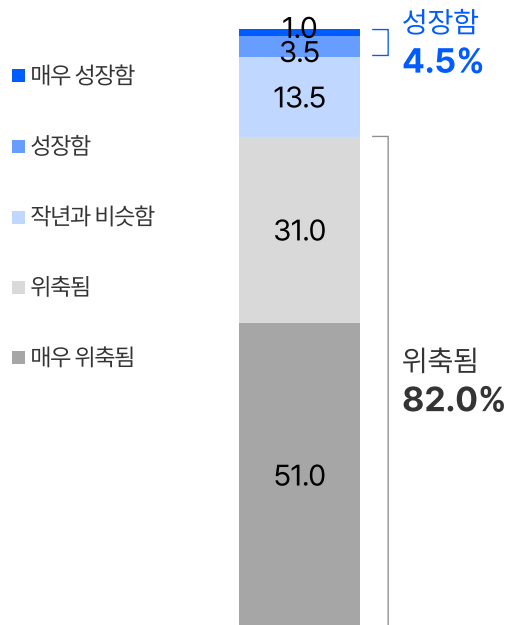
Q. 가장 선호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은 어디인가요?

작년(2021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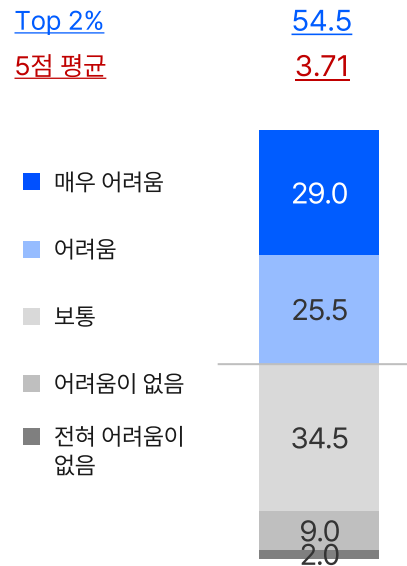
10명 중 8명은 전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함

82%의 스타트업 창업자가 지난해 대비 올해 스타트업 투자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작년 대비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주로 경기침체, 투자 시장 위축, 금리인상,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작년 대비 투자 유치가 어려워 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시장 인식



작년 대비 투자 유치 현황



작년 대비 투자 유치 어려워진 이유 (n=109)

경제/금리 상황	49.5	거시 환경	12.8
• 경기침체	23.9	• 정부지원 축소	4.6
• 금리인상	14.7	• 거시환경 불안정	3.7
• 글로벌 경기 침체	7.3		
투자 상황	43.1	스타트업 운영	9.2
• 투자 시장 위축	21.1	• 외사 성장 정체	3.7
• 자금 시장 경색	10.1		

Q. 지난해(2021년)와 비교해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창업하신 기업의 투자유치는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Base: 창업자 (n=200), Unit : %]
*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이유 3%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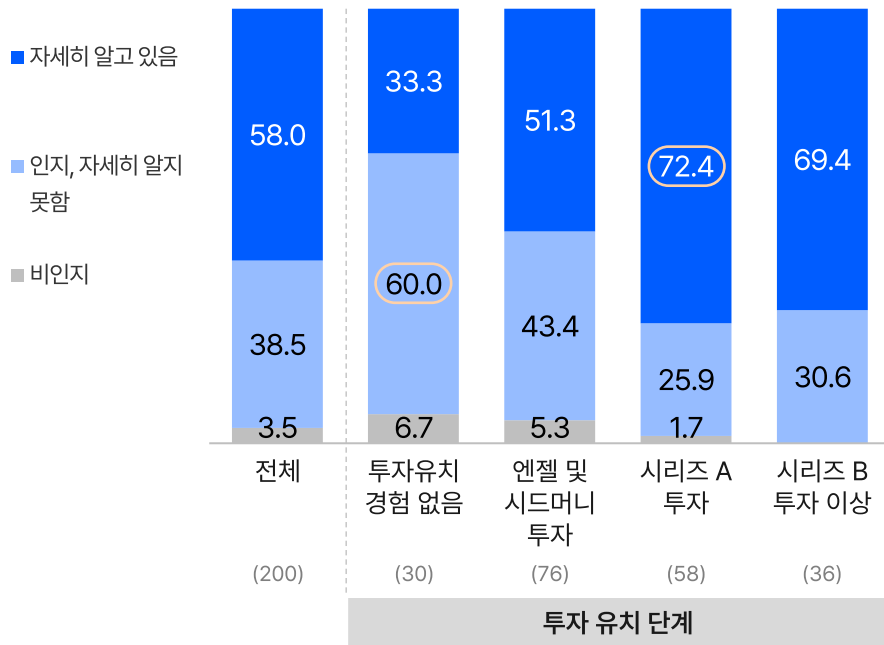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인지 및 체감 정도

시리즈 A 투자 단계의 스타트업 창업자가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음

58%가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며, 69%는 실제로 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단계별로 살펴보면, 시리즈 A 투자 단계의 스타트업 창업자의 인지 및 체감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인지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체감 정도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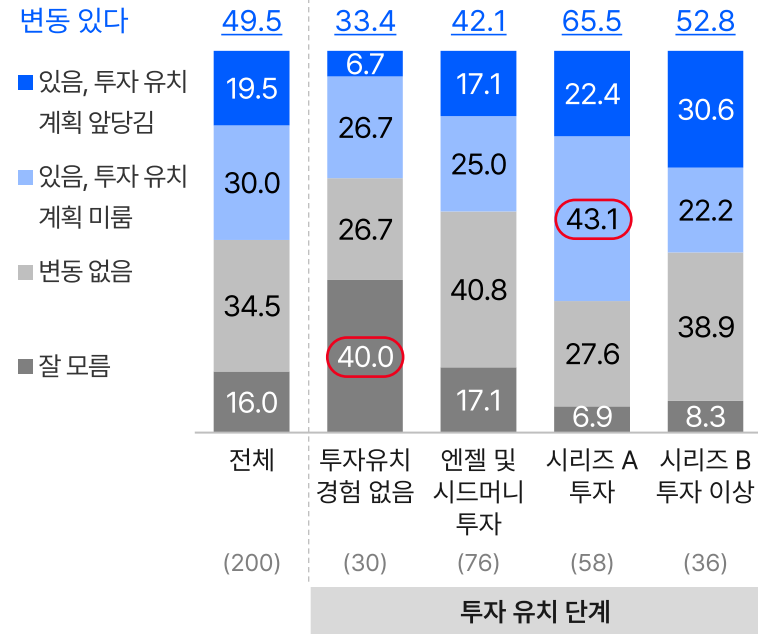
Q.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가요?

투자 유치 일정 변동 여부 및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관련 리스크 대비책

절반 가량이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이슈로 인해 투자 유치 계획 일정을 변동함

전체 응답자의 49.5%가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이슈로 인해 기업의 투자 유치 계획 일정을 앞당기거나 미루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주로 기업 비용 절감, 흑자 사업 집중, 투자 유치 계획 조정,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 등을 통해 흑한기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투자 유치 계획 일정 변동 여부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관련 리스크 대비책

	전체 (200)	투자 유치 단계			
		투자유치 경험 없음 (30)	엔젤 및 시드머니 투자 (76)	시리즈 A 투자 (58)	시리즈 B 투자 이상 (36)
기업 비용 절감	52.0	53.3	52.6	50.0	52.8
수익성 개선을 위해 흑자 사업에 집중	48.5	43.3	44.7	53.4	52.8
투자 유치 계획 조정	43.5	26.7	40.8	46.6	58.3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	41.5	26.7	39.5	51.7	41.7
채용 축소	27.0	30.0	27.6	27.6	22.2
공공부문/정부 지원 사업 추진 등	24.0	33.3	26.3	25.9	8.3
기업 매각/인수합병 추진	17.0	6.7	19.7	20.7	13.9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00), Unit : %]
 *흑한기 관련 리스크 대비책: 1+2+3순위 기준

Q.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로 인해 창업하신 기업의 투자 유치 계획 일정에 변동이 있었나요? / 발생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하실 예정 이신가요?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2. 스타트업 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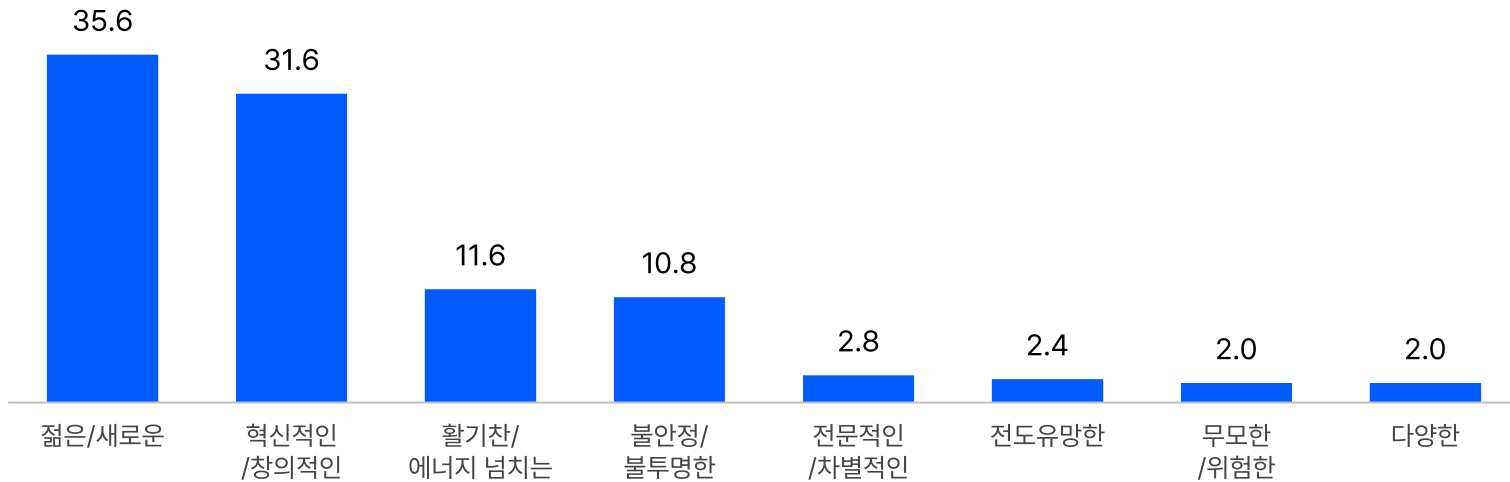
규모 총 250명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 재직자

스타트업 이미지

스타트업 재직자에게 스타트업은 젊은/새로운, 혁신적인/창의적인 이미지

스타트업 재직자들에게 스타트업 이미지는 '젊은/새로운' (35.6%), '혁신적인/창의적인' (31.6%)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먼저 인식되고 있습니다.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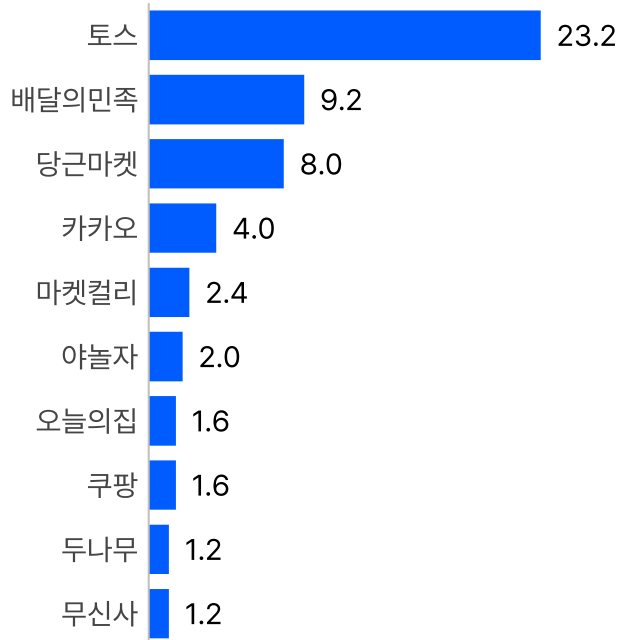
Q.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국내 스타트업 인식

토스, 배달의민족, 당근마켓의 빠른 성장세를 체감하며, 관심도 높음

스타트업 재직자가 생각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 토스(23.2%)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뒤를 이어 배달의민족(9.2%), 당근마켓(8%)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스타트업 역시 토스(23.2%), 배달의민족(10.4%), 당근마켓(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Unit : %]

* 1%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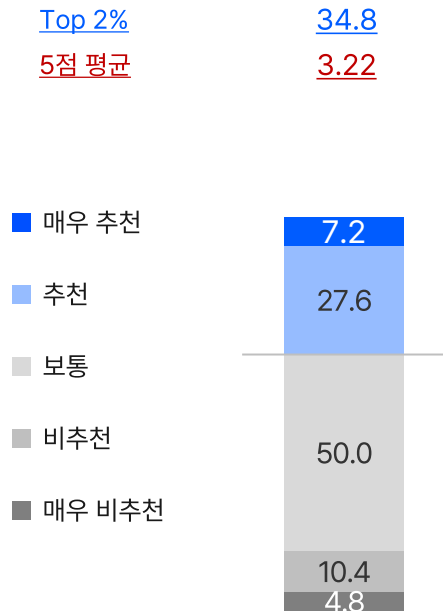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스타트업 근무 추천 의향

스타트업 재직자의 34.8%는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며, 시리즈 A~B 투자 단계의 스타트업을 가장 많이 추천함

스타트업 재직자의 34.8%가 스타트업 근무를 주변 친구/지인에게 추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추천 스타트업 단계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으며, 주도적으로 도전적인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리즈 A~B단계 추천이 가장 많았습니다.

스타트업 근무 추천 의향



추천 스타트업 단계 (n=87)



해당 단계 스타트업 추천 이유

초기 스타트업 (엔젤 투자 단계)

"시리즈 A를 앞둔 회사를 추천한다. 주도적인 업무로 인한 성취감과 함께 조직을 준비하는 경험까지 가능하기 때문"

초기 투자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A 투자 단계)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움직이는 시기라 다양한 걸 시도해볼 수 있어서 그 이전 단계도 좋긴 하지만 파운딩 멤버로서의 무게감이 너무 커서 A단계 정도가 좋지 않을까 함"

소, 중규모 투자 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A~B 투자 단계)

"시리즈 A~B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체계는 잡혀 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점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C 이상부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투자 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C 이상 투자 단계)

"안정성을 기반으로 적절한 보수를 받으며 (대기업 등에 비해서)더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스타트업 근무 추천 응답자, Unit : %]

Q.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에서의 근무 기회를 추천하시나요?

스타트업 근무 비추천 의향 이유

스타트업 근무 추천을 주저하거나 비추천하는 이유는 주로 '불안정성/불확실성', '체계 미흡'

반면,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지 않거나, 추천 의향이 보통인 이유로는 주로 '리스크/불안정성/불확실', '체계적이지 못함', '힘듦/많은 노력 필요' 측면이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불안정성	50.9
• 리스크/불안정성/불확실함	44.2
• 성공/흑자전환이 높지 않음	4.9
조직 문화/분위기	35.6
• 체계적이지 못함	18.4
• 힘들어서/많은 노력이 필요함	9.8
• 업무량이 많음	4.9
• 워라벨이 힘들	3.7
급여/복지	12.9
• 급여가 낮음	5.5
• 불안정한 급여/급여를 못 받을 수 있음	3.1
기타	15.3
•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서	7.4
• 장단점이 명확함/장단점이 있음	3.1

- "많은 스타트업이 업무에 대해 배우기 어렵다. 사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 "혁신적이지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추천은 하고 싶지 않다"
- "불안정성. 자금문제. 투자 안되면 보릿고개다"
- "다양한 일을 접해보기에는 좋는데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
- "스타트업이 전도유망하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그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만 반면 실패했을 때 날아갈 시간이 너무 아깝다"
-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부분에 시스템을 만들고 실수와 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힘들 수 있다"
- "스타트업은 복불복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회사마다의 성격도 천차만별이라 솔직히 본인에게 맞는 스타트업을 찾는 일이 쉬울 것 같진 않다"

[Base: 스타트업 근무 보통/비추천 응답자 (n=163), Unit : %]

Q.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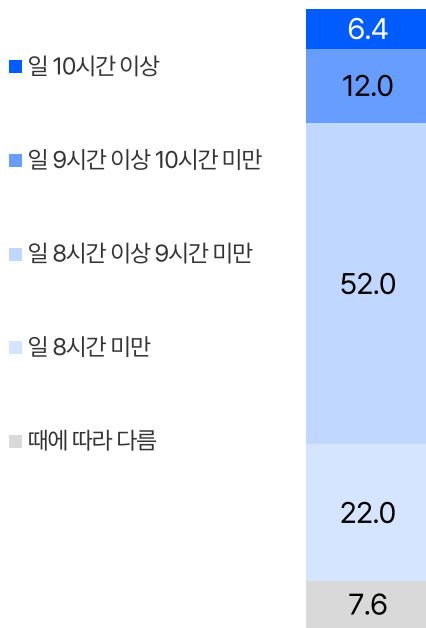
근무 환경

주로 일 8~9시간, 일반 건물 내 독립 사무실에서 근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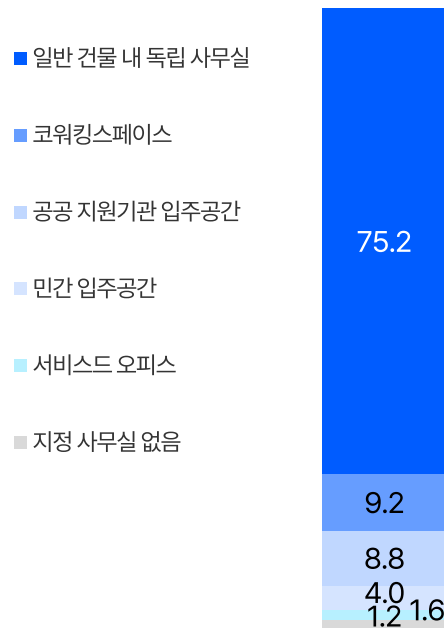
절반 이상인 52%가 일 8시간~9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일반 건물 내 독립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율 복장으로 일하며, 그 외 식대/간식 지원, 탄력근무, 수평적 호칭 문화, 재택근무 등이 주요한 스타트업의 복지/근무 환경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 환경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Unit : %]

Q. 재직중인 스타트업의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환경'은 어떠한가요?

전반적 근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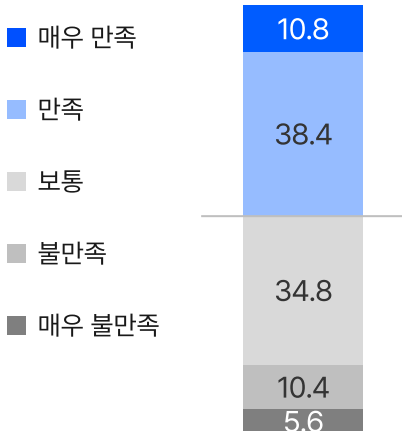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의 49.2%가 스타트업 생활에 만족, 주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워라밸, 유연/빠른 의사결정에 만족함

스타트업 만족도는 49.2%로, 불만족 16%보다 만족 비율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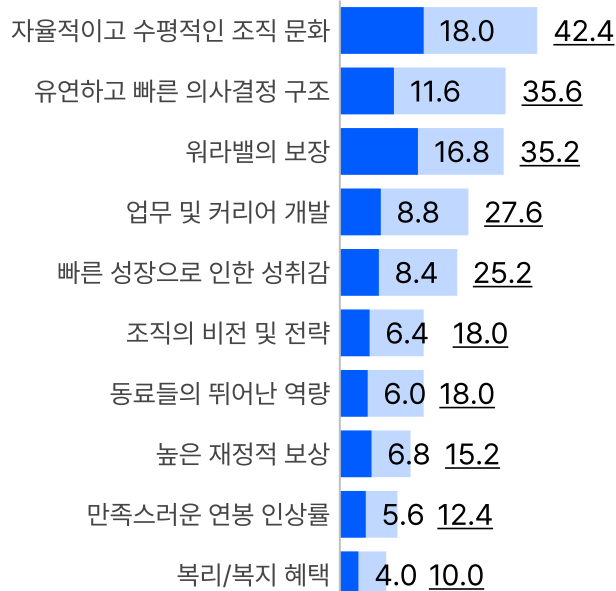
주로 자율/수평적 조직 문화,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 워라밸 보장에서 만족하나, 낮은 기업 인지도/재정적 보상, 불안정한 조직 비전/전략, 적은 복리/복지 혜택 측면은 주요한 불만족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반적 근무 만족도

Top 2% **49.2**
5점 평균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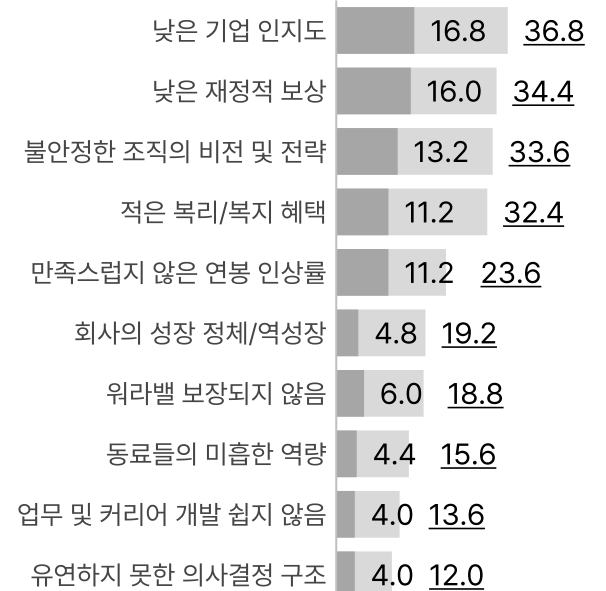


만족 요인



■ 1순위, ■ 1+2+3순위

불만족 요인



■ 1순위, ■ 1+2+3순위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Unit : %]

* 1+2+3순위 기준 10% 미만 절삭

Q. 재직 중인 스타트업에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신가요? / 만족/불만족 요인은 무엇인가요?

대표(CEO) 평가

재직자가 대표에게 준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6.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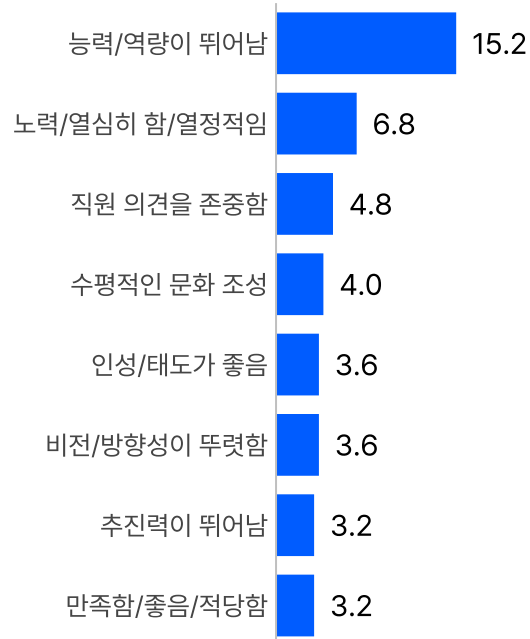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들은 재직 기업의 대표에 대해 평균 6.4점(10점 만점)을 주었습니다.

긍정 및 부정 평가 이유 모두 대표의 '능력/역량'이 주로 응답되고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기대하는 요소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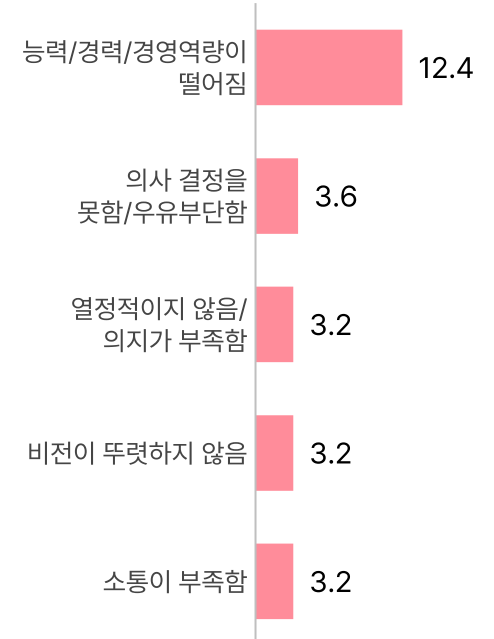
대표(CEO) 평가



긍정 평가 이유



부정 평가 이유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Unit : %]

*긍정/부정 평가 이유 3%미만 응답 절삭

Q. 재직하는 스타트업 대표(CEO)에 대해서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나요? /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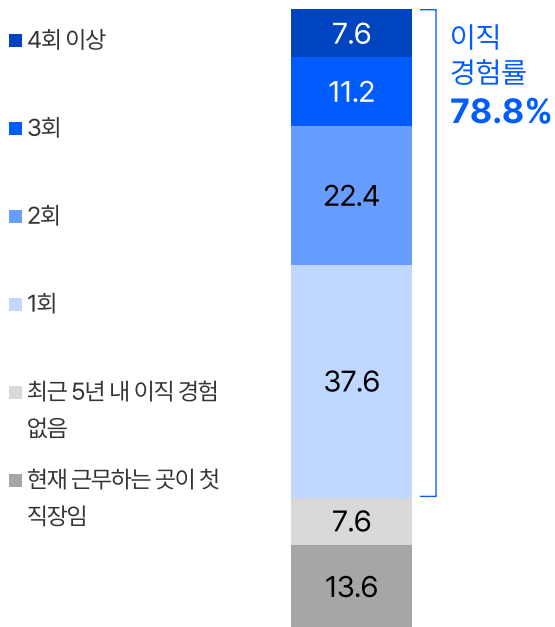
이직 관련 행태

스타트업 재직자 10명 중 7~8명은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이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에서 이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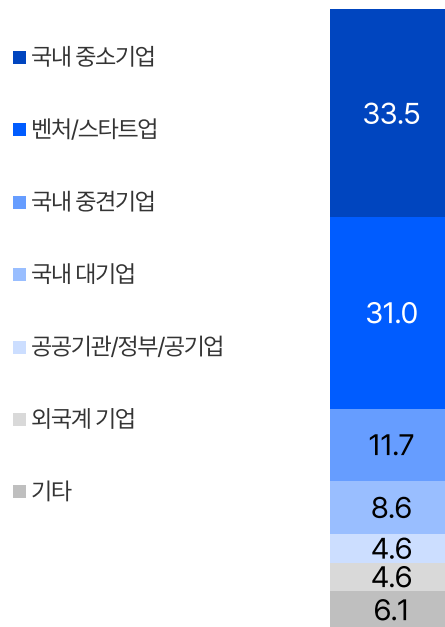
전체 스타트업 재직 응답자의 78.8%가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이 있으며, 주로 1~2회 이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전 직장은 주로 중소기업(33.5%), 벤처/스타트업(31%)이며, 이직 준비 시 조직문화/팀 내부 정보 탐색, 지원기업 탐색이, 금전적 보상 탐색 등 주로 기업 관련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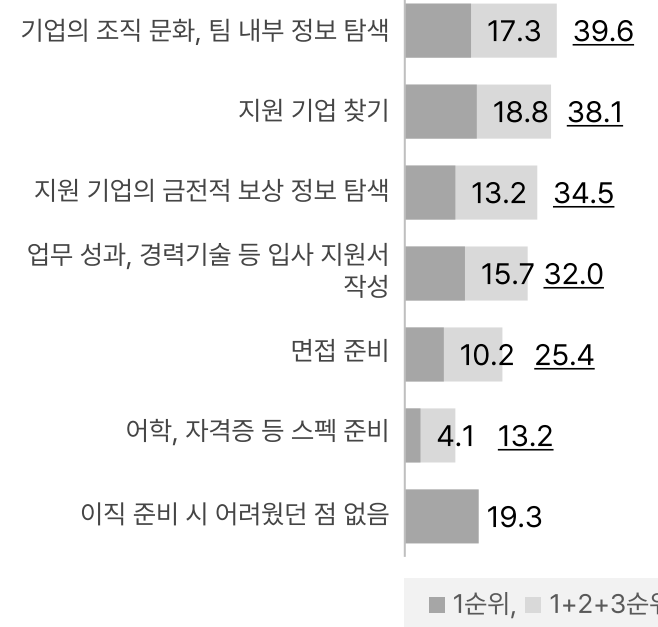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



전 직장 형태



스타트업 이직 준비 어려운 점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자 (n=197), Unit : %]

Q. 5년 내 이직을 몇 회 정도 하셨나요? / 현 직장 직전 근무하시던 곳은 어디인가요? / 재직하고 계신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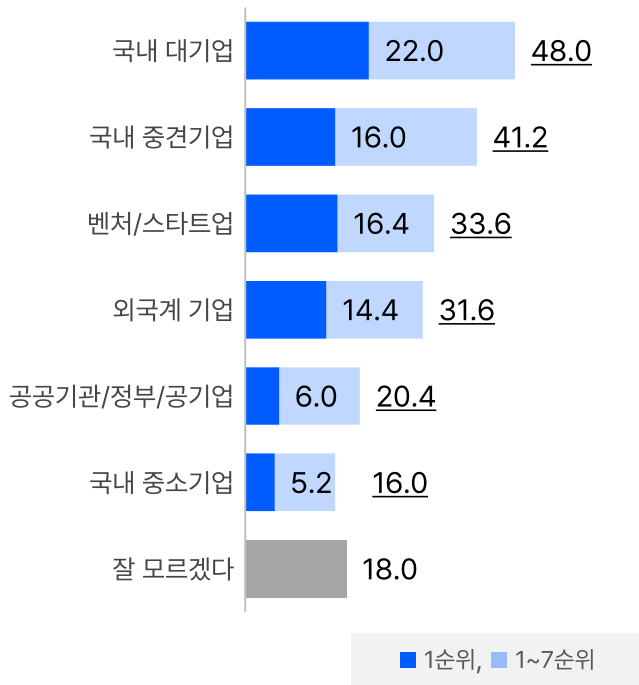
향후 이직 희망 조직 형태

향후 이직 시 복리/복지 혜택, 재정적 보상이 높은 대기업을 선호함

향후 이직 희망 조직 형태로 국내 대기업, 국내 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외국계 기업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주로 복리/복지 혜택, 높은 재정적 보상에서, 벤처/스타트업은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업무/커리어 개발, 조직문화 측면에서 선호합니다.

향후 이직 희망 조직 형태



1순위 조직 형태 이직 희망 이유

	전체	이직 희망 조직 형태 (1순위)			
		국내 대기업	벤처/스타트업	국내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
(Base)	(205)	(55)	(41)	(40)	(36)
높은 재정적 보상을 기대	44.4	54.5	31.7	45.0	58.3
복리/복지 혜택이 좋을 것 같아서	34.6	56.4	9.8	30.0	38.9
업무 및 커리어 개발이 가능해서	27.3	21.8	46.3	25.0	25.0
만족스러운 연봉 인상률 기대	26.8	38.2	24.4	27.5	25.0
워라밸이 보장될 것 같아서	25.4	16.4	14.6	30.0	44.4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기대	21.5	10.9	48.8	17.5	13.9
동료들의 역량이 뛰어날 것 같아서	17.1	20.0	22.0	10.0	22.2
기업/기관 인지도가 높아서	15.6	25.5	0.0	22.5	8.3
조직의 비전 및 전략이 마음에 들어서	12.7	9.1	22.0	15.0	0.0
조직 문화가 마음에 들어서	12.2	3.6	24.4	5.0	25.0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이직 희망 조직 응답자 (n=205), Unit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이직 희망 이유: 1+2+3순위 기준

Q. 향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이직하고 싶으신가요? / 해당 조직으로 이직하고 싶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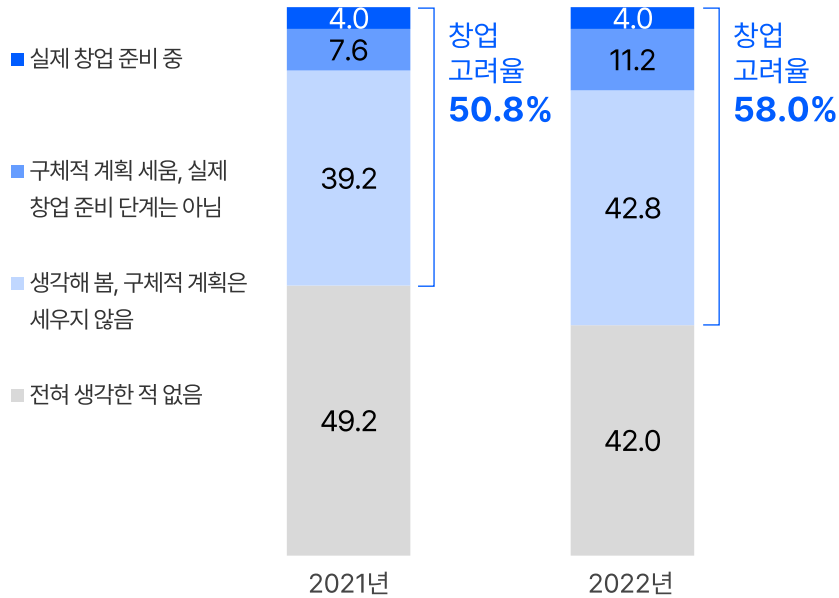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58%가 올해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약 7%p 증가한 수치임

스타트업 재직자의 58%가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작년(50.8%) 대비 7.2%p 증가한 수치입니다.

창업을 고려하는 스타트업 재직자의 20.8%가 콘텐츠/미디어 업종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창업 고려 여부



창업 고려 업종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창업 고려자 (n=159), Unit : %]

* 창업 고려 업종 3% 미만 응답 절삭

Q.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1년 전(2021년)에는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 창업을 고려하셨을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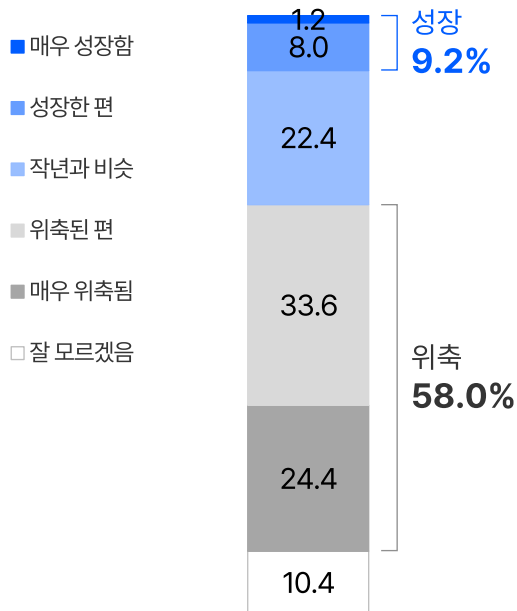
작년(2021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스타트업 재직자의 58%가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함

스타트업 재직자의 58%는 작년 대비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하여, 성장(9.2%)보다는 위축 인식이 6배 이상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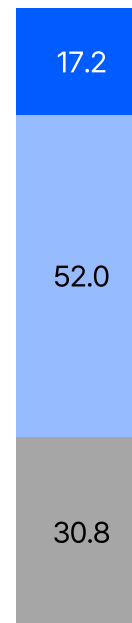
절반 이상이 벤처투자 시장 호한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히 모르며, 46%는 이를 실제로 체험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2021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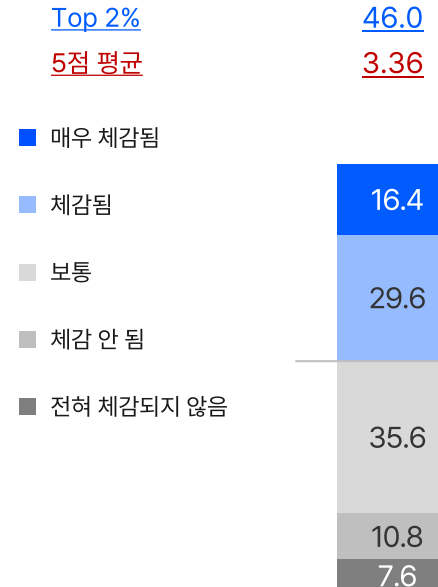


벤처투자 시장 호한기 인지

- 자세히 알고있음
- 들어 본 적있음, 자세히는 모름
- 들어 본 적 없음



벤처투자 시장 호한기 체험 정도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Unit : %/5점 평균]

Q. 2021년와 비교해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벤처투자 시장 호한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얼마나 체험 하시나요?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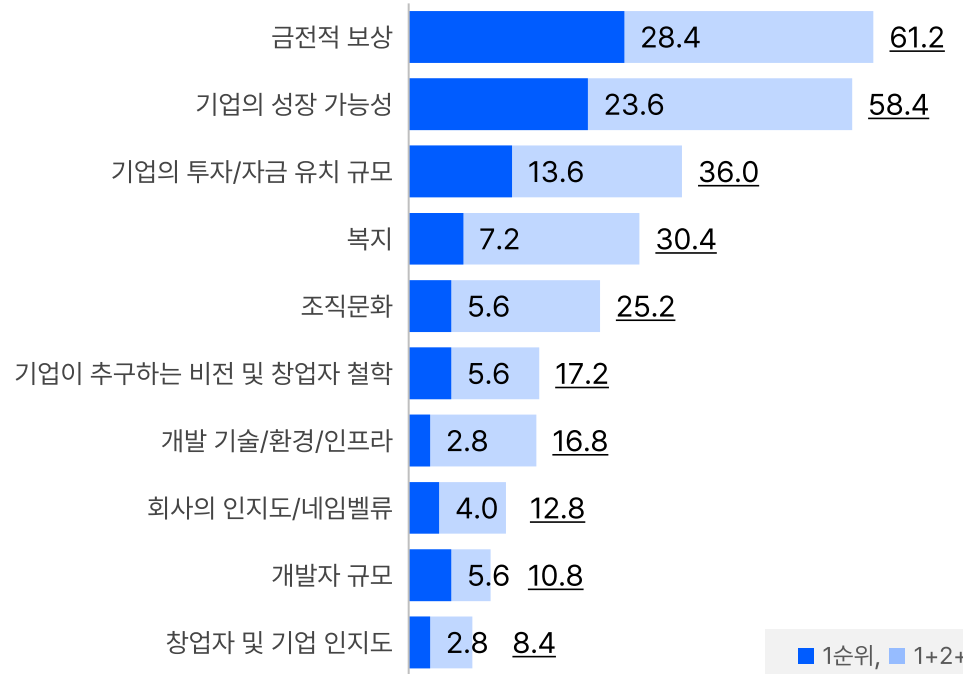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 10명 중 4명은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로 인해 지속 근무에 영향을 받음

40.0%가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가 스타트업 지속 근무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으며, 창업을 고려한 스타트업 재직자의 49.7%가 창업 의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하였습니다. 흑한기 이슈로 인해 벤처/스타트업 이직 시, '금전적 보상',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특별히 더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 근무/창업 영향 정도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로 인한 이직 중요 고려 영향 요소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창업 고려자 (n=159), Unit : %/5점 평균]

Q.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가 스타트업에 지속 근무/창업 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 벤처투자 흑한기로 인해 이직 시 특별히 더 고려하시게 될 요인이 있을까요?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3. 대기업 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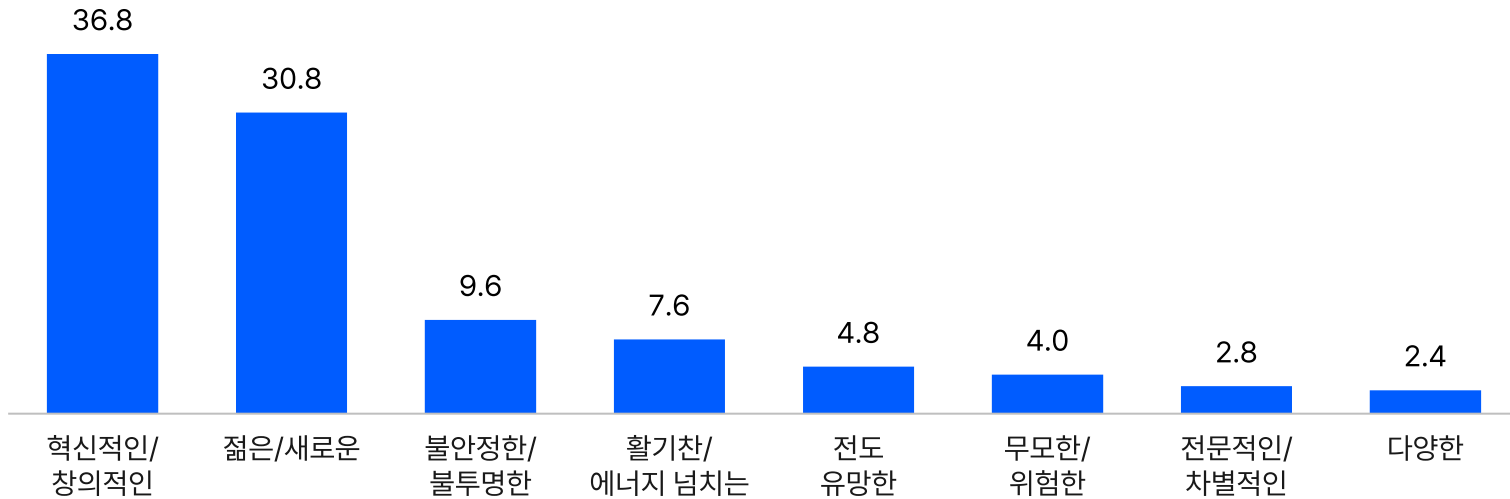
규모 총 250명

대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국내 대기업 재직자

스타트업 이미지

대기업 재직자에게 스타트업은 '혁신적인/창의적인', '젊은/새로운' 이미지

대기업 직장인의 36.8%는 스타트업에 대해 '혁신적/창의적'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며, 30.8%는 '젊은/새로운' 이미지를 답하여 대부분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Unit : %]

Q.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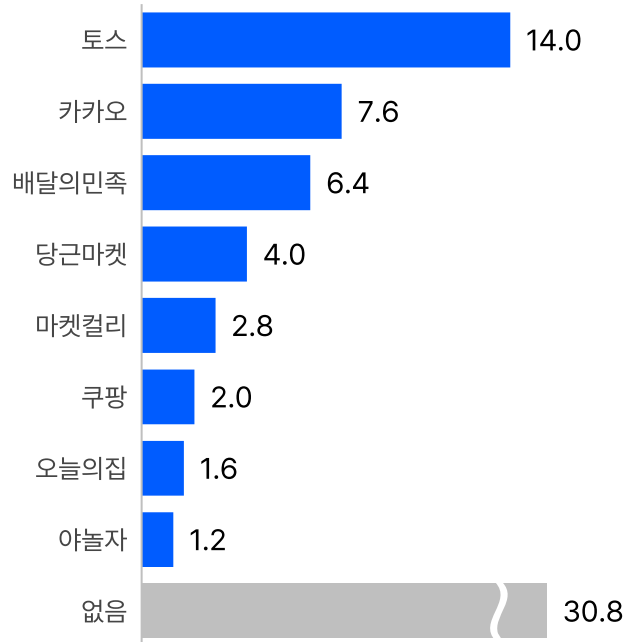
국내 스타트업 인식

빠른 성장 인식/관심 스타트업으로 토스, 카카오, 배달의민족이 주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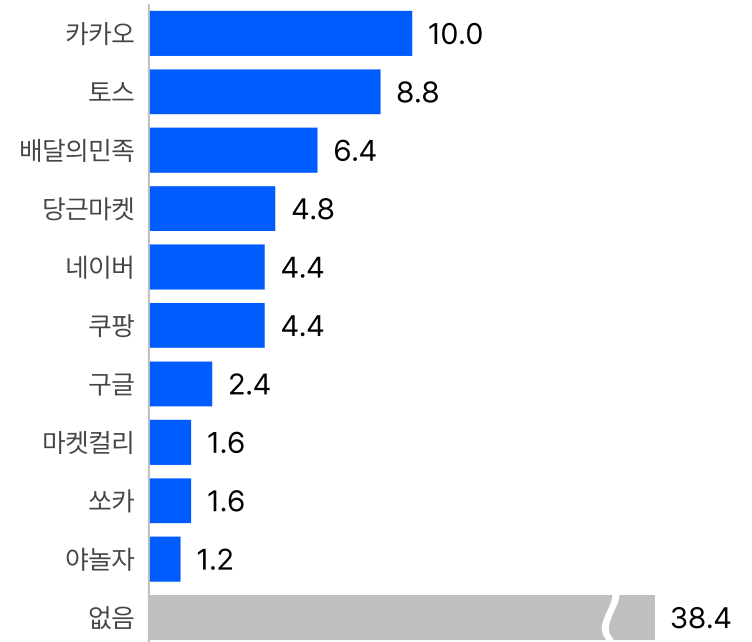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가 생각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 토스(14%)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카카오, 배달의민족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스타트업으로는 카카오, 토스, 배달의민족 순으로 나타나, 국내 스타트업 중 토스/카카오/배달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Unit : %]

* 1% 미만 응답 절삭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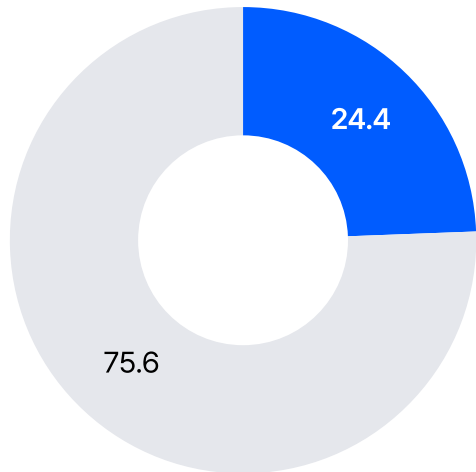
스타트업 정보탐색 경험 및 탐색 경로

대기업 재직자 4명 중 1명은 평소 스타트업 정보를 탐색하며, 주로 포털 사이트 검색, 카페/커뮤니티, 직장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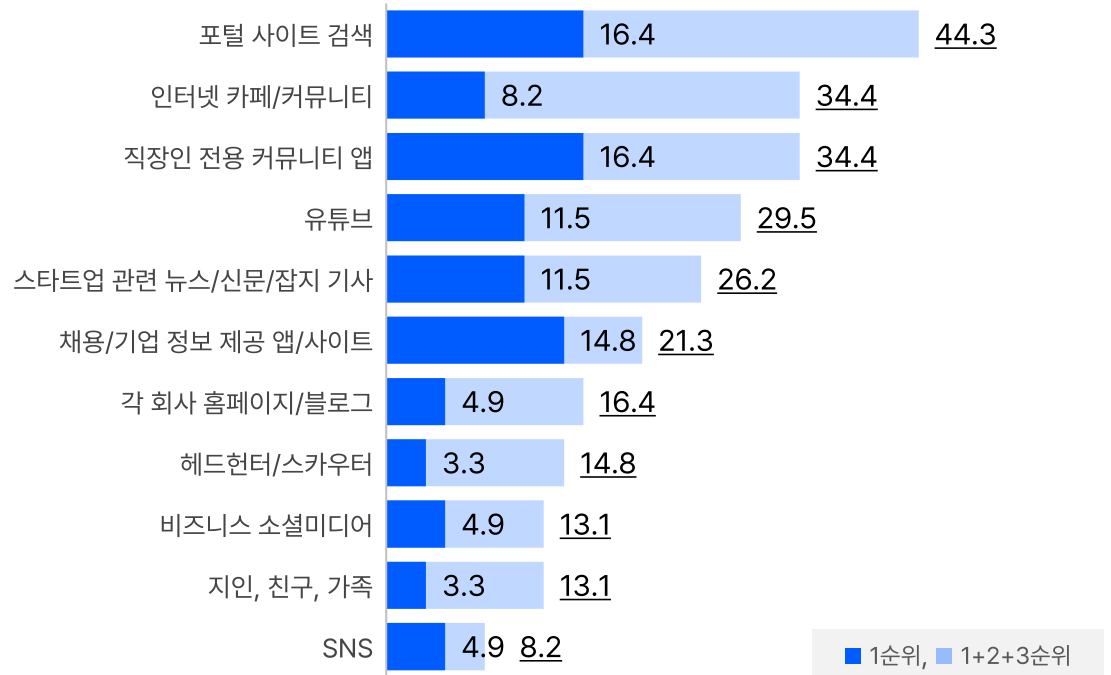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의 24.4%는 평소 스타트업 관련 정보(스타트업 뉴스, 시장 현황, 취업/이직 정보 등)를 찾아본 경험이 있으며, 주로 포털 사이트 검색,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직장인 전용 커뮤니티 앱(블라인드 등)을 통해 탐색하고 있습니다.

평소 스타트업 정보탐색 경험

- 경험 있음
- 경험 없음



스타트업 관련 정보 탐색 경로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 스타트업 정보 탐색자 (n=61), Unit : %]

Q. 평소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찾아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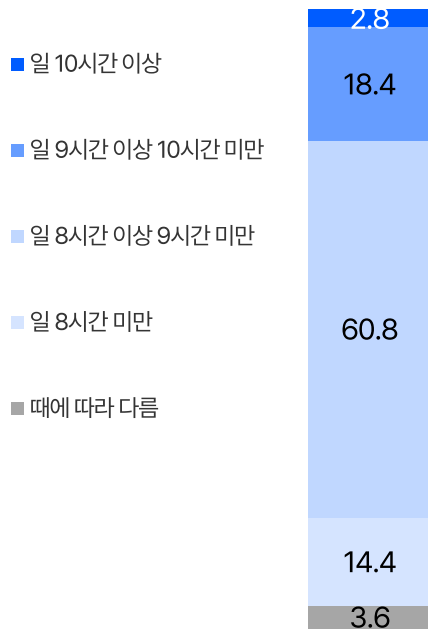
근무 환경

대기업 재직자는 주로 일반 건물 내 독립 사무실에서, 일 8~9시간 근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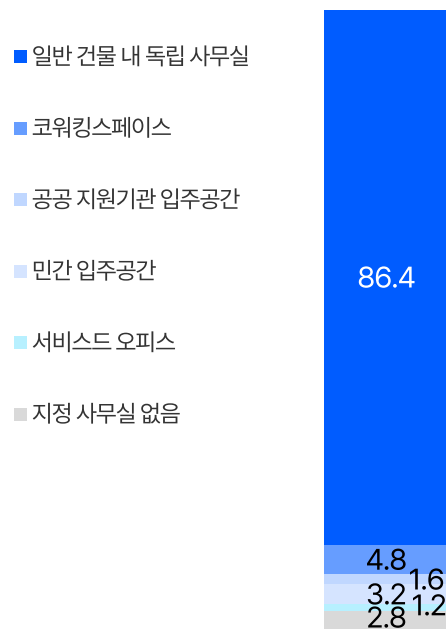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의 60.8%는 일 8시간 이상~9시간 미만 근무하며, 대부분 일반 건물 내 독립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자율 복장, 사내 식당, 복지 비용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식대/간식 지원, 탄력근무 혜택/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 환경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Unit : %]

Q. 재직중인 대기업의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환경'은 어떠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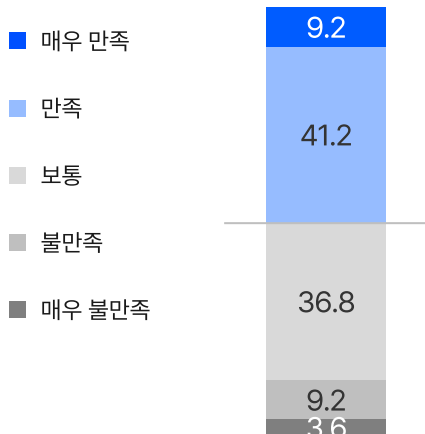
전반적 근무 만족도

절반(50.4%)이 대기업에서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주로 복리/복지 혜택, 높은 인지도, 워라밸, 재정적 보상 측면에서 만족함

대기업 재직자의 50.4%가 대기업에서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복리/복지 혜택, 높은 기업 인지도, 보장된 워라밸, 높은 재정적 보상에 만족합니다. 반면, 불만족 요인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 인상률'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습니다.

전반적 근무 만족도

Top 2% **50.4**
5점 평균 **3.43**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Unit : %]

* 불만족 요인 : 1+2+3순위 기준 10% 미만 응답 절삭

Q. 재직중인 대기업에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신가요? / 만족/불만족 요인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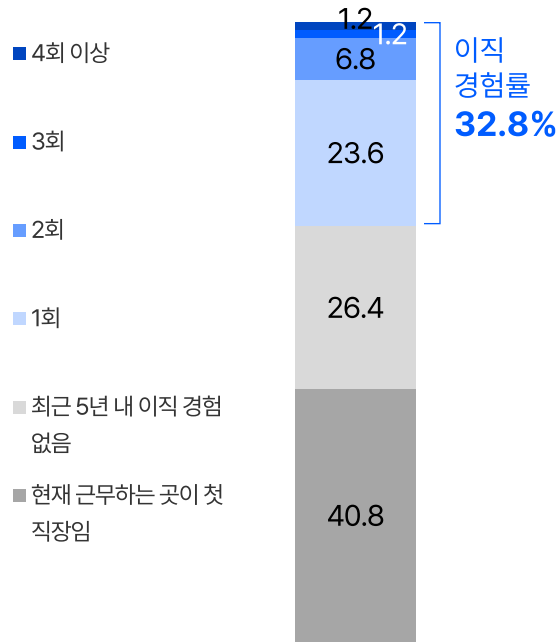
이직 관련 행태

3명 중 1명은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이 있으며, 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서 이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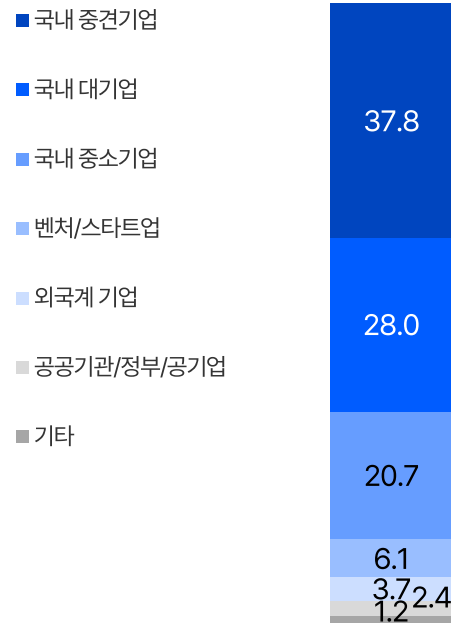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의 32.8%가 최근 5년 내 이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국내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이직하였습니다.

대기업 이직 시 어려운 점으로는 '면접 준비', '입사 지원서 작성', '기업 조직문화/내부 정보 탐색', '금전적 보상 정보 탐색' 측면이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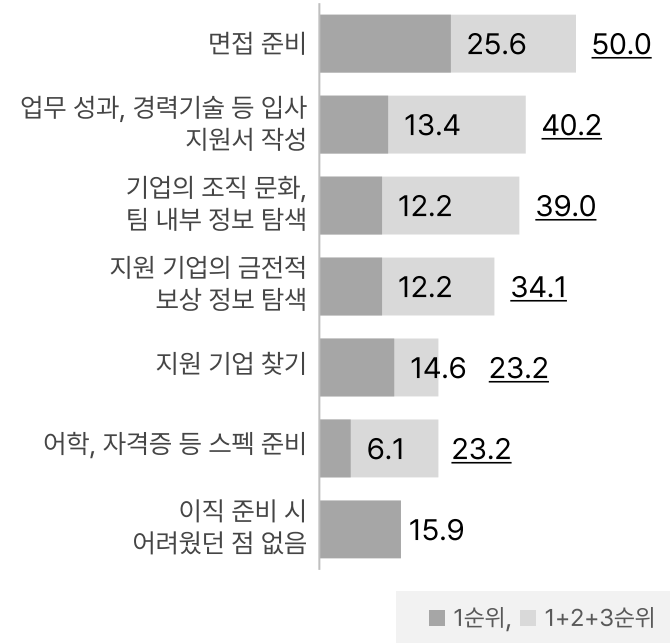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



전 직장 형태



대기업 이직 준비 어려운 점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자 (n=82), Unit : %]

Q. 5년 내 이직을 몇 회 정도 하셨나요? / 현 직장 직전 근무하시던 곳은 어디인가요? / 재직하고 계신 대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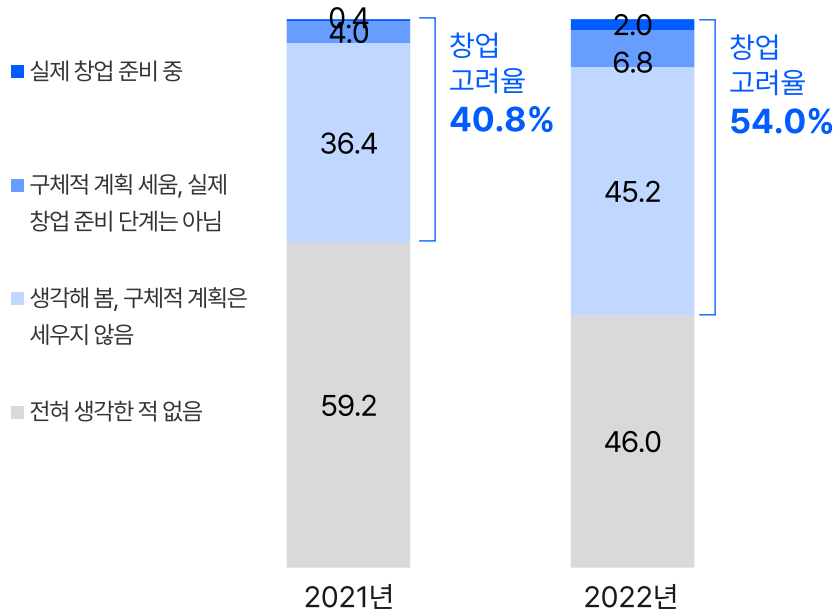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대기업 재직자의 54%는 올해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약 13%p 증가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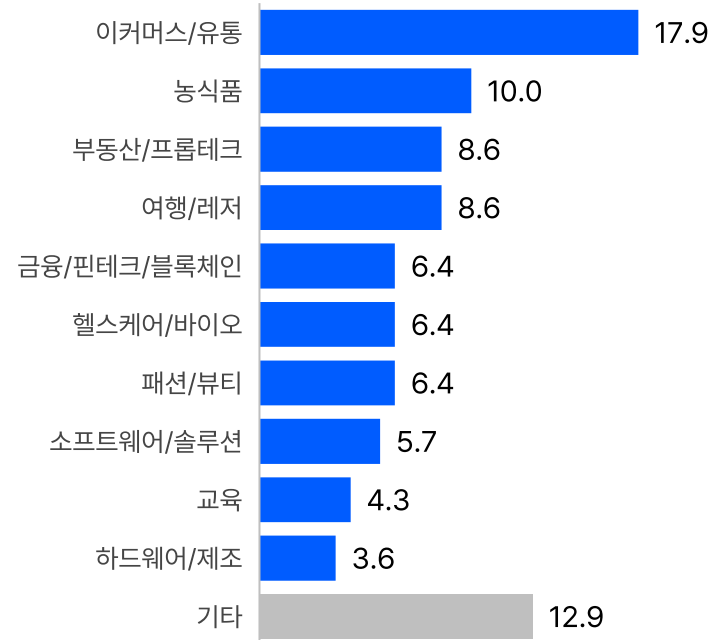
54%의 대기업 재직자가 2022년 직접 창업을 생각해 본 적 있으며, 이는 2021년(40.8%) 대비 13.2%p 증가한 수치로 확인됩니다.

창업을 고려한 경우, 주로 이커머스/유통, 농식품, 부동산/프롭테크, 여행/레저 업종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창업 고려 여부



창업 고려 업종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 창업 고려자 (n=140), Unit : %]

* 창업 고려 업종 3% 미만 응답 절삭

Q.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1년 전(2021년)에는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 창업을 고려하셨을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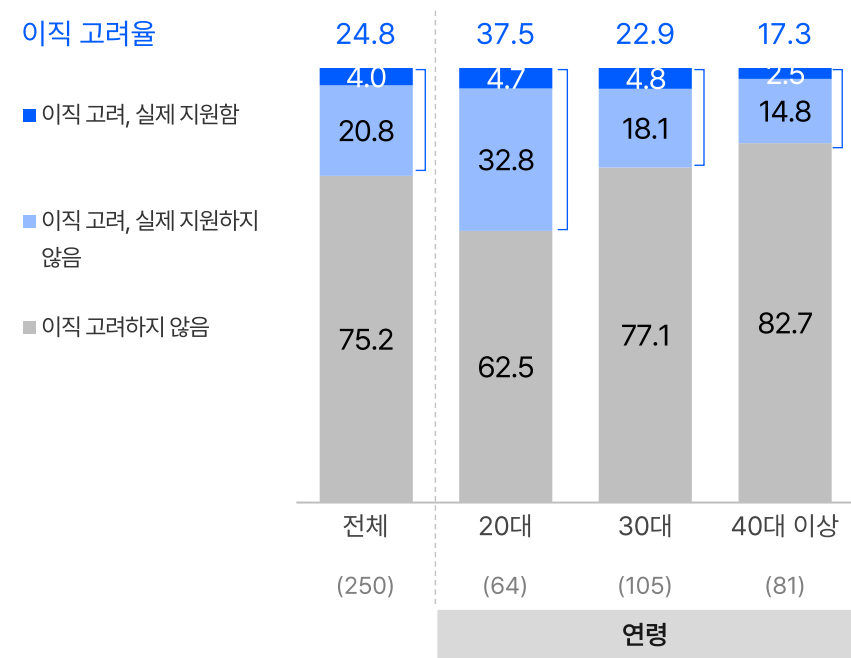
최근 1년 스타트업 이직 고려 여부

대기업 재직자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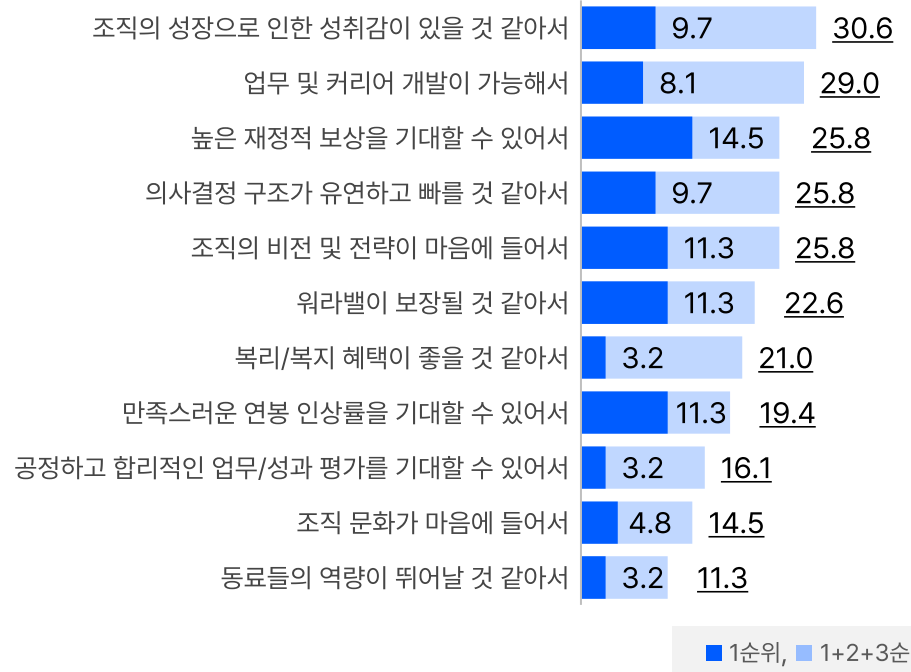
전체의 24.8%는 지난 1년 동안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 고려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한 이유로는 주로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업무/커리어 개발, 재정적 보상,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 조직 비전/전략, 워라밸 보장 측면에 대한 기대가 나타납니다.

최근 1년 스타트업 이직 고려 여부



스타트업 이직 고려 이유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 (n=62),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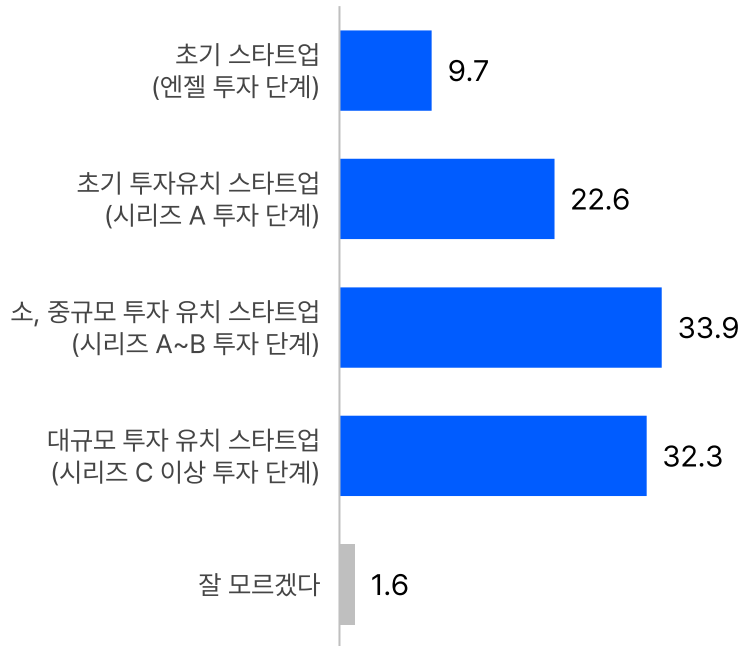
Q. 지난 1년 동안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직 고려 스타트업 단계 및 희망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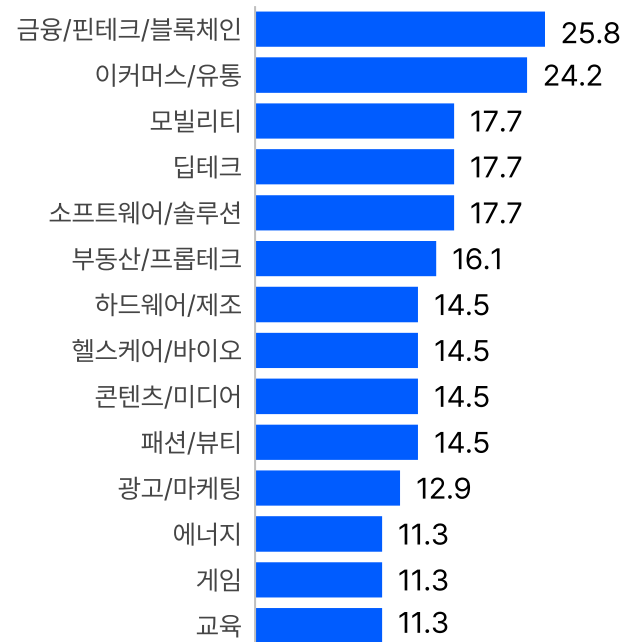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가 이직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은 시리즈 A~B 투자 단계 이상

대부분 시리즈 A~B 투자 단계 이상의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며, 금융/핀테크/블록체인, 이머저스/유통 분야로의 이직 희망 비율이 높습니다.

이직 고려 스타트업 단계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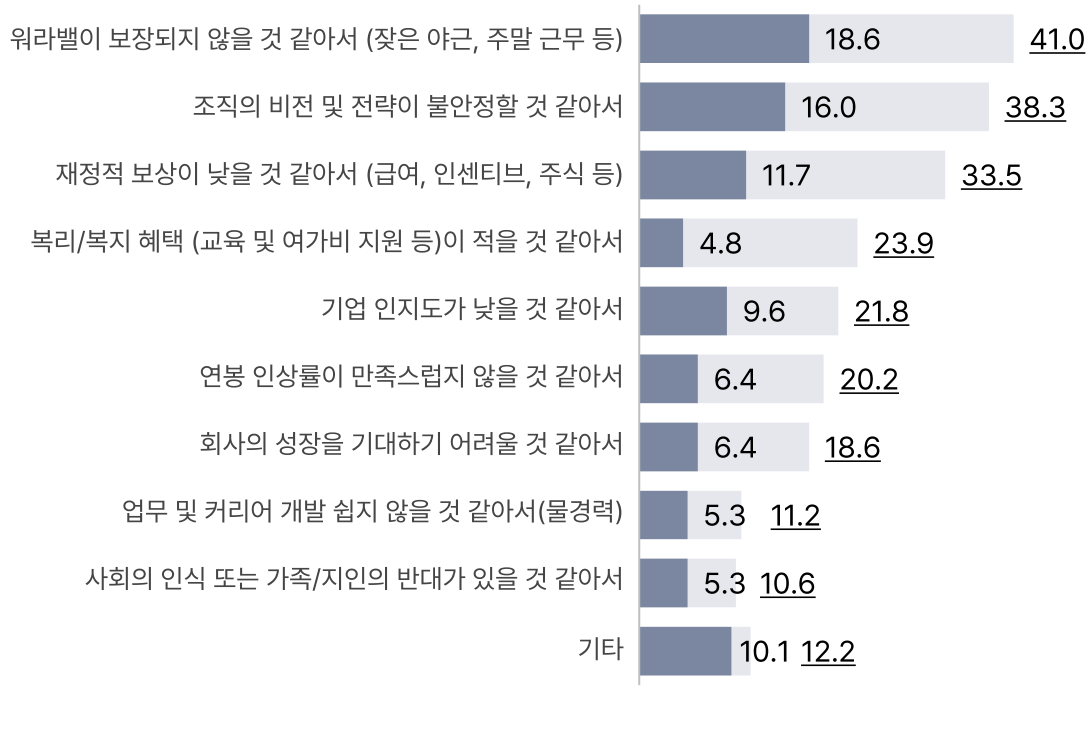
[Base: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 (n=62), Unit : %]
*이직 희망 분야 : 1+2+3순위 기준 *10% 미만 응답 절삭

Q.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셨나요? / 어느 분야의 스타트업에 이직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스타트업 이직 비교려 이유

워라벨 비보장,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 낮은 재정적 보상에 대한 우려가 주요 대기업 재직자의 스타트업 이직에 대한 심리적 허들 요인

대기업 재직자가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 '워라벨 비보장',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 '낮은 재정적 보상' 측면이 응답되었습니다.



[Base: 스타트업 이직 비교려자 (n=188), Unit : %]

Q.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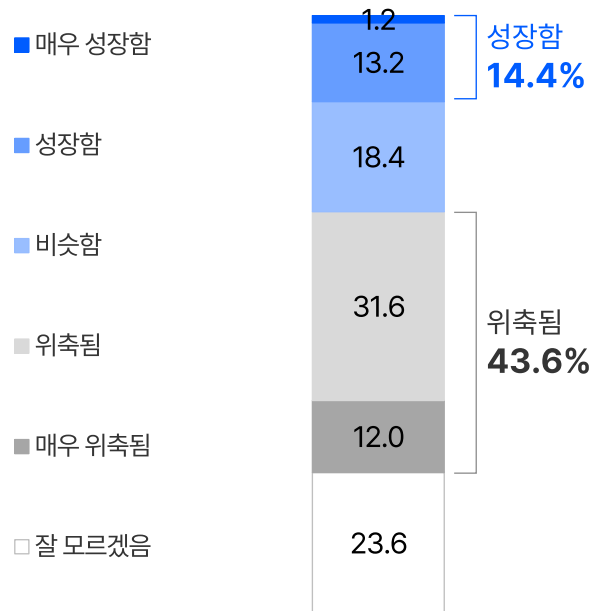
작년(2021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대기업 재직자 43.6%가 작년 대비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함

지난해 대비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대해 43.6%가 위축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성장 평가(14.4%) 대비 3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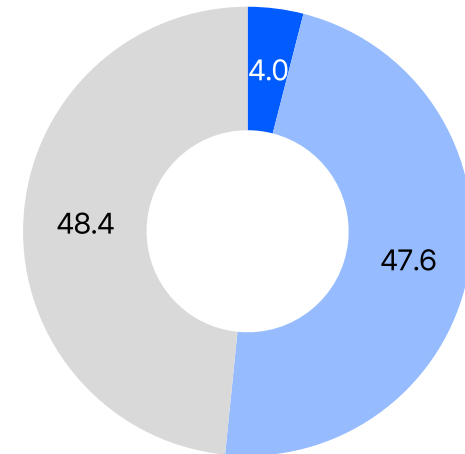
대부분 벤처투자 시장 확산기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거나(48.4%), 들어보았더라도 잘 알지 못합니다(47.6%).

작년(2021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벤처투자 시장 확산기 인지

- 자세히 인지
- 인지, 자세히 알지 못함
- 비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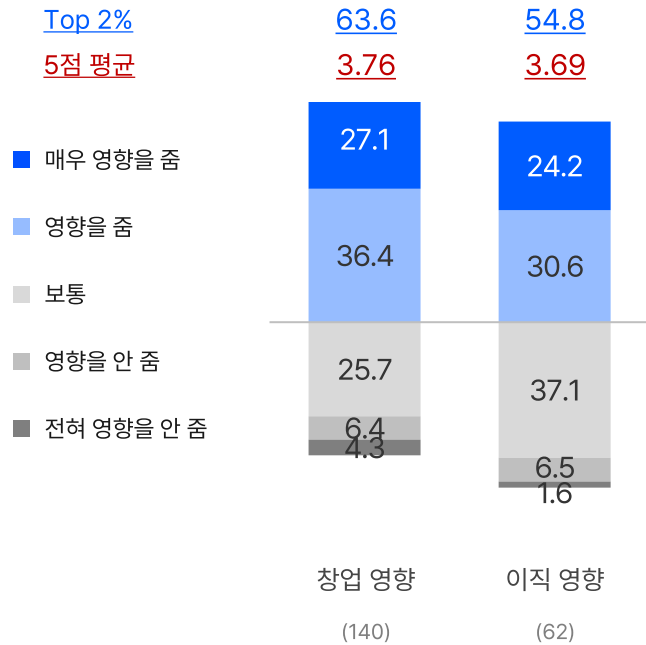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Unit : %]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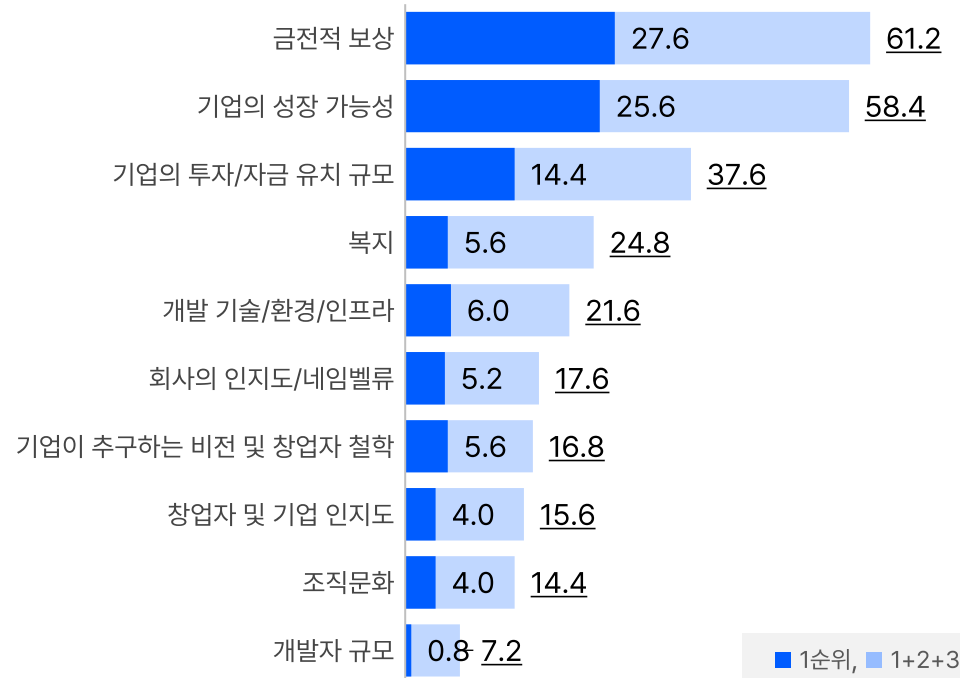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는 절반 이상의 창업 고려/스타트업 이직 고려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

대기업 재직자 중 창업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자의 63.6%,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해 본 자의 54.8%는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가 창업/이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로 인해 스타트업 이직 고려 시 금전적 보상, 성장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 근무/창업 영향 정도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로 인한 이직 중요 고려 영향 요소



[Base: 창업 고려자 (n=140),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 (n=62) / 대기업 재직자 (n=250), Unit : %/5점 평균]

Q.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는 귀하의 창업/스타트업 이직 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 벤처투자 흑한기로 인해 이직 시 특별히 더 고려하시게 될 요인이 있을까요?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4. 취업준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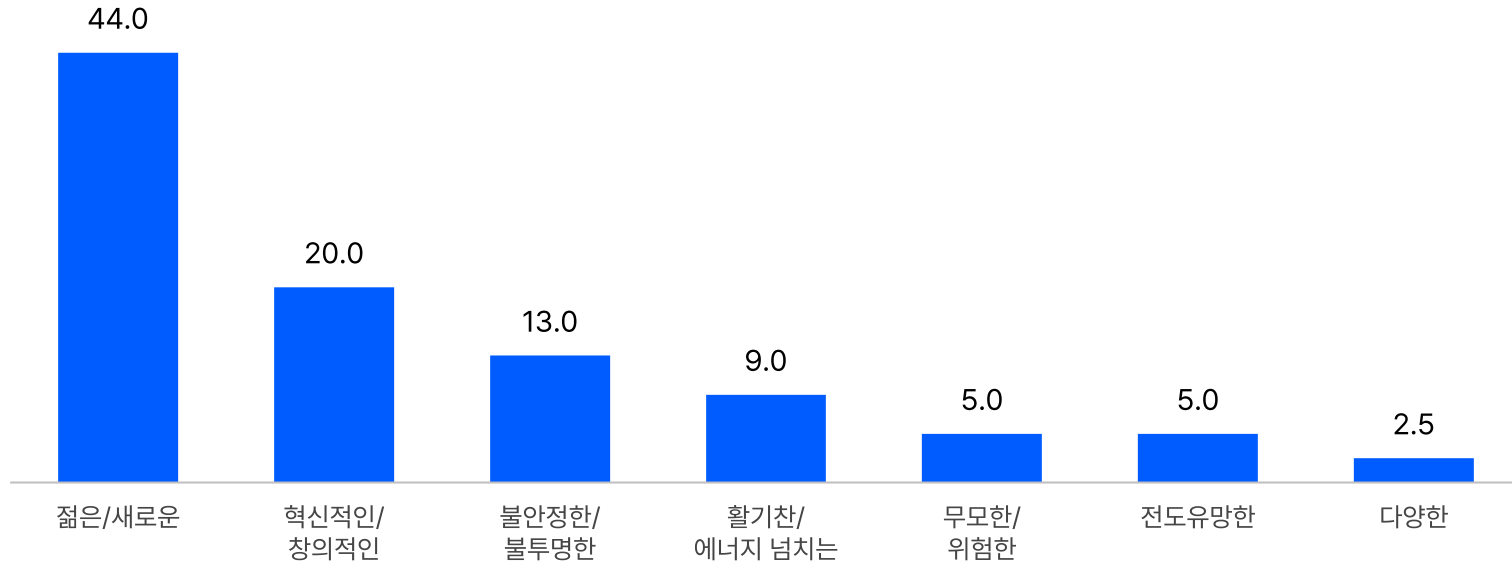
규모 총 200명

대상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스타트업 이미지

취업준비생에게 스타트업 이미지는 '젊은/새로운' 이미지

취업준비생의 44%가 스타트업 연상 시 '젊은/새로운'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Base: 취업준비생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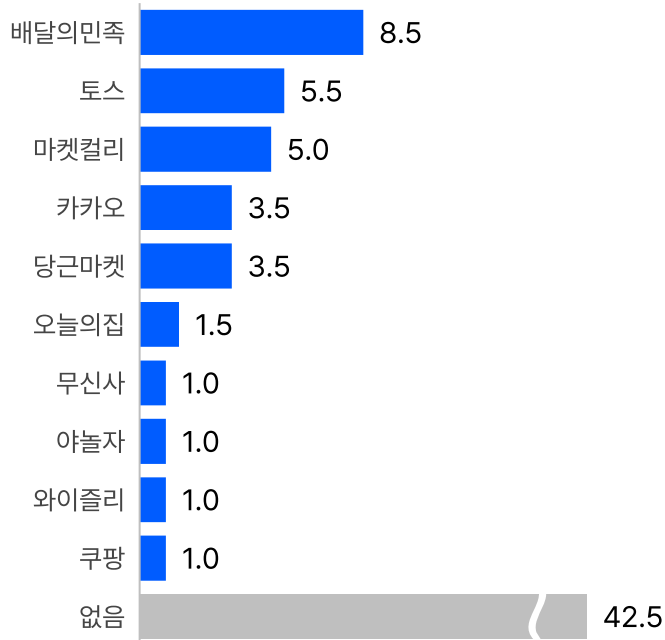
Q.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국내 스타트업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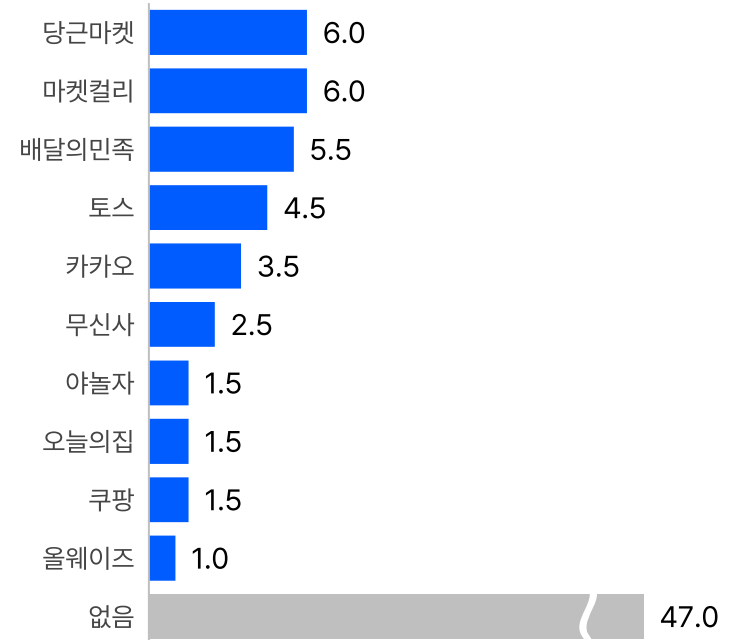
취업준비생이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은 당근마켓,마켓컬리, 배달의민족

취업준비생 10명 중 4~5명은 빠른 성장/관심 국내 스타트업에 대해 미응답(모름/없음)한 가운데,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는 배달의민족, 토스,마켓컬리가 비교적 많이 응답되었고,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스타트업으로는 당근마켓,마켓컬리, 배달의민족 순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



[Base: 취업준비생 (n=200), Unit : %]
* 1% 미만 응답 절삭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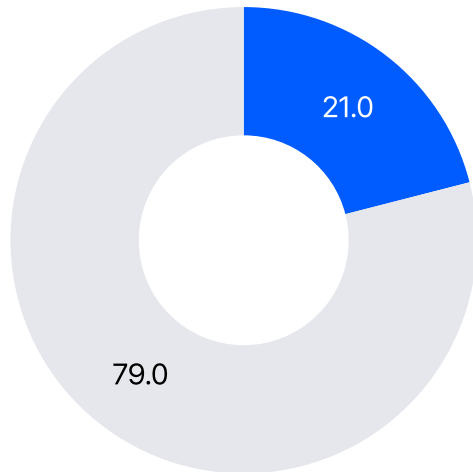
스타트업 정보탐색 경험 및 탐색 경로

취업준비생 5명 중 1명은 평소 스타트업 정보를 탐색하며, 주로 채용/기업정보 앱/사이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파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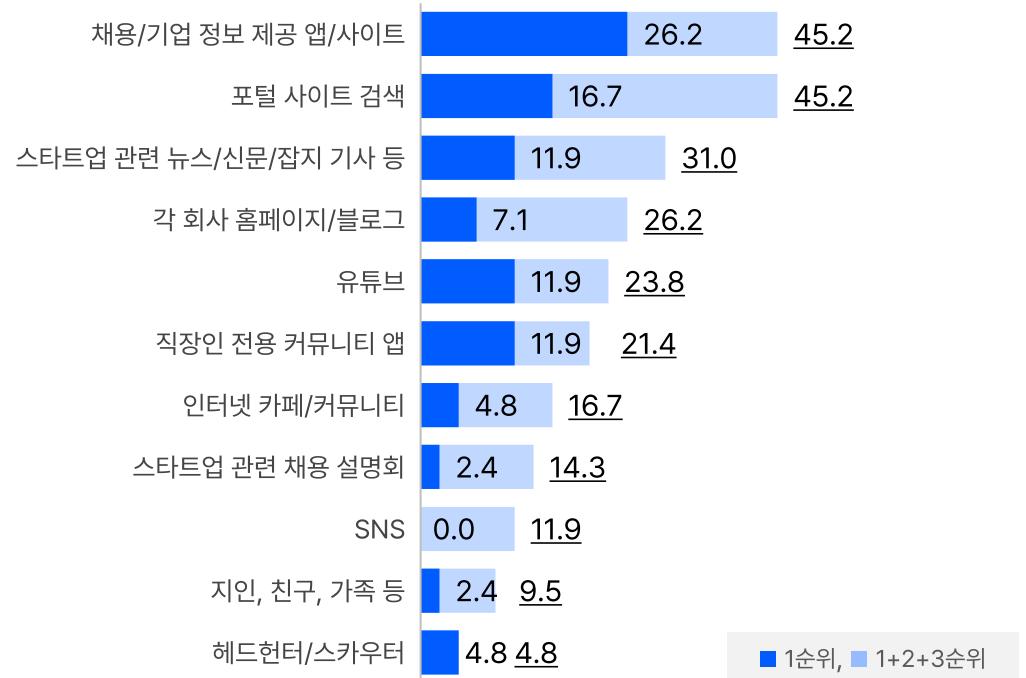
21%가 평소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경험이 있으며, 주로 채용/기업 정보 제공 앱/사이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평소 스타트업 정보탐색 경험

- 경험 있음
- 경험 없음



스타트업 관련 정보 탐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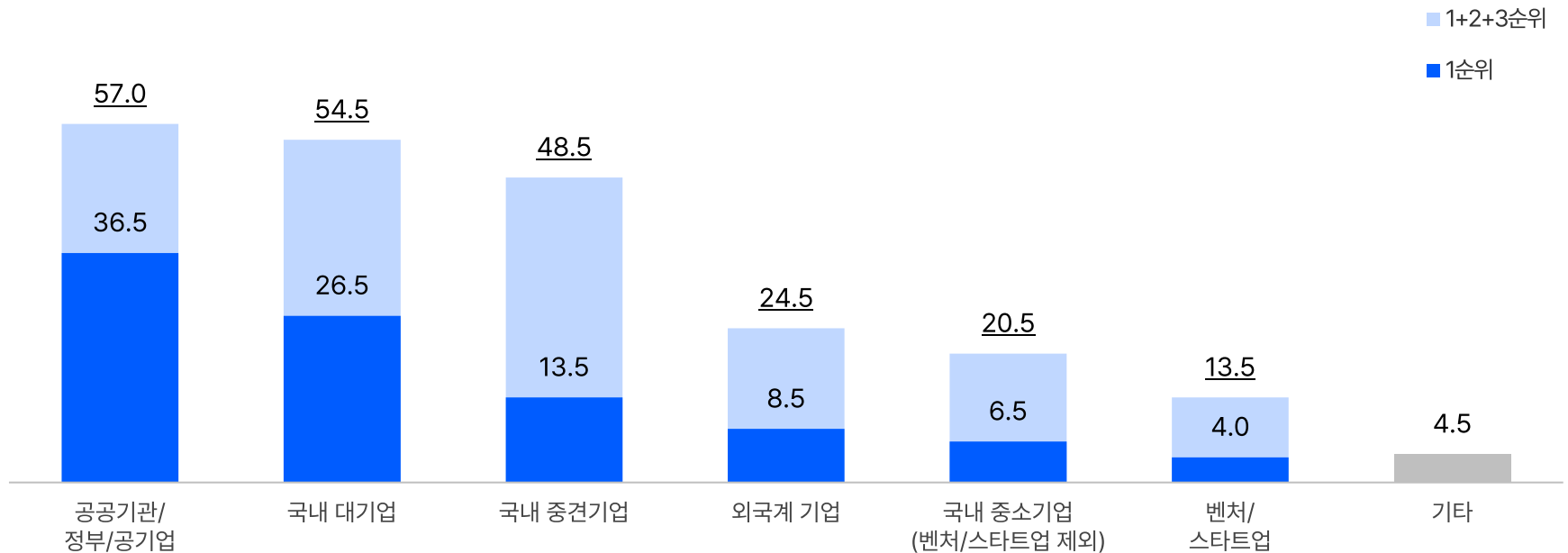
[Base: 취업준비생 (n=200) / 스타트업 정보 탐색자 (n=42), Unit : %]

Q. 평소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찾아보시나요?

취업 희망 회사

취업준비생이 가장 취업을 희망하는 조직은 공공기관/정부/공기업(36.5%), 대기업(26.5%) 순

취업준비생의 36.5%가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조직)로 공공기관/정부/공기업을 선택했으며, 26.5%는 국내 대기업을 선택했습니다. 4%만이 '벤처/스타트업'을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 꼽았으며, 3순위 내 기준으로도 13.5%에 불과합니다.



[Base: 취업준비생 (n=200), Unit : %]

Q. 취업하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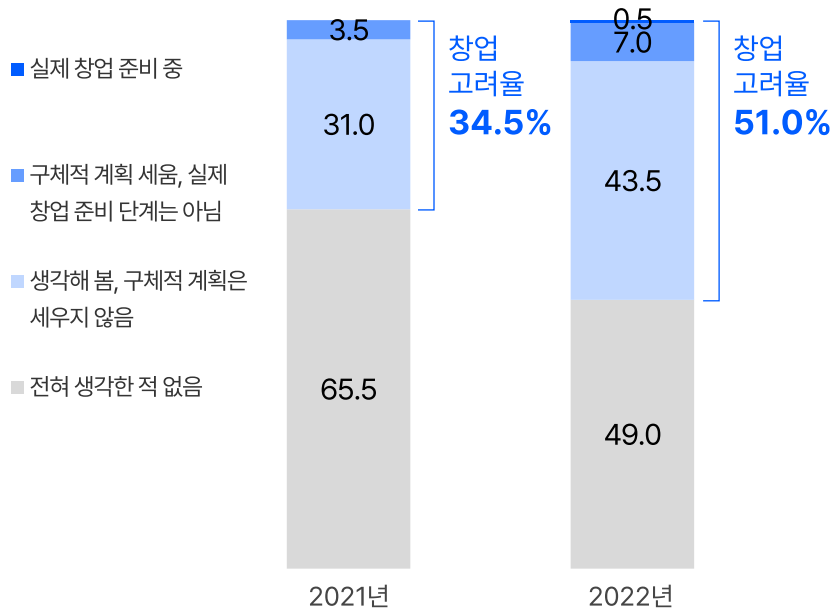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취업준비생의 51%가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콘텐츠/미디어, 패션/뷰티, 농식품 업종 창업을 주로 염두에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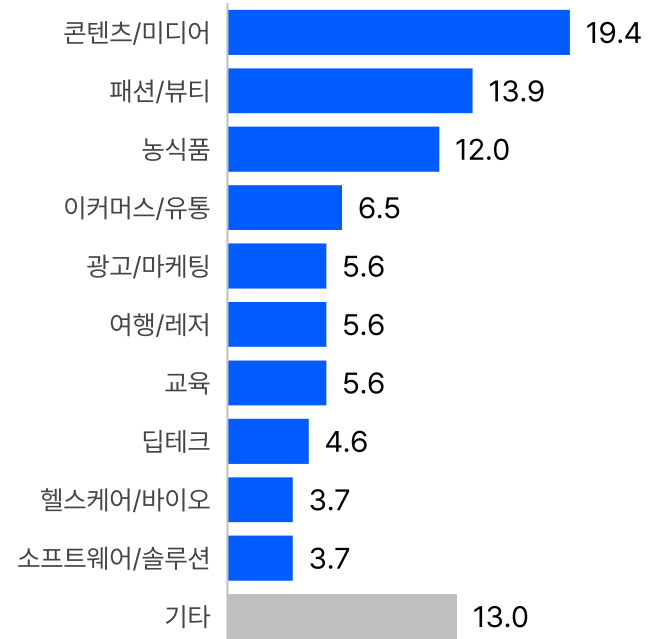
취업준비생의 51%가 올해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약 16.5%p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 취업준비생 특성상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창업 고려율이 증가했을 수 있음)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콘텐츠/미디어, 패션/뷰티, 농식품 업종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창업 고려 여부



창업 고려 업종



[Base: 취업준비생 (n=200) / 창업 고려자 (n=108), Unit : %]

* 창업 고려 업종 3% 미만 응답 절삭

Q.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1년 전(2021년)에는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 창업을 고려하셨을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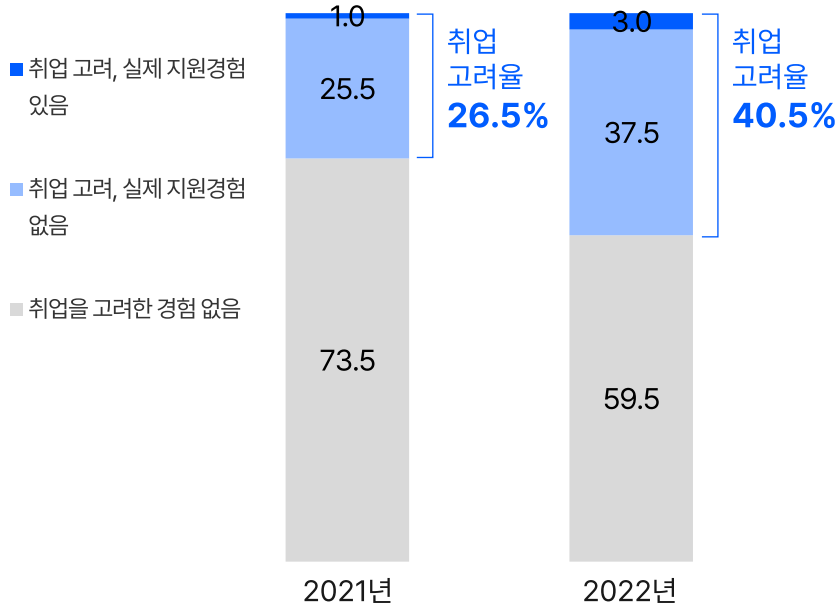
최근 1년 스타트업 취업 고려 여부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은 올해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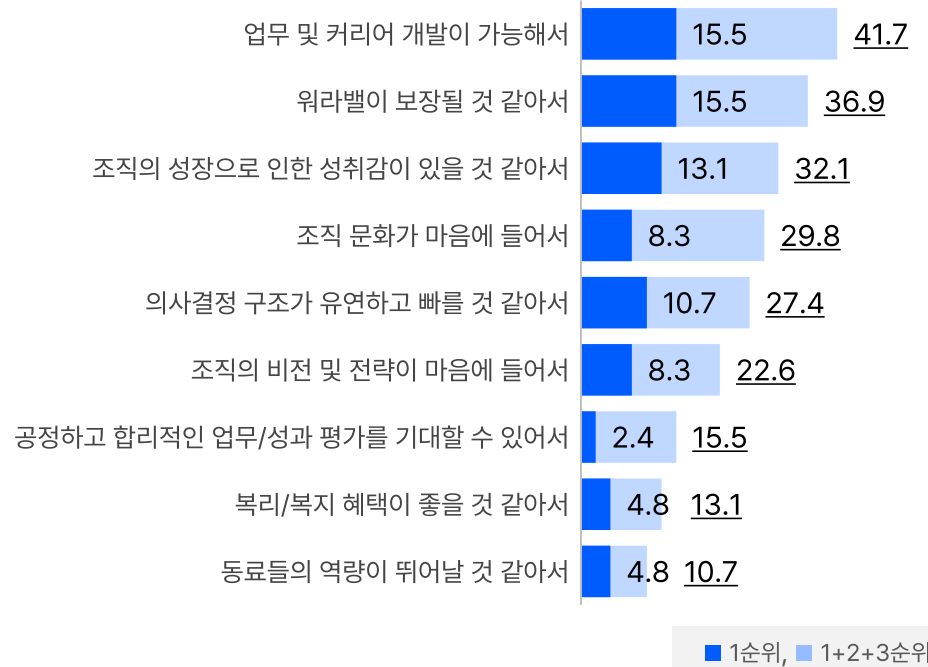
지난 1년 동안(올해)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한 취업준비생 비율은 40.5%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26.5%) 대비 14%p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 취업준비생 특성상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취업 고려율이 증가했을 수 있음)

취업준비생에게 스타트업은 주로 업무/커리어 개발, 워라밸 보장,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조직 문화,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 측면에서 선호됩니다.

최근 1년 스타트업 취업 고려 여부



스타트업 취업 고려 이유



[Base: 취업준비생 (n=200) / 스타트업 취업 고려자 (n=84), Unit : %]
* 1+2+3순위 응답 기준 10% 미만 응답 절삭

Q. 지난 1년 동안 스타트업으로의 취업을 고려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1년 전(2021년)에는 스타트업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 스타트업으로 취직을 고려하셨거나 실제로 지원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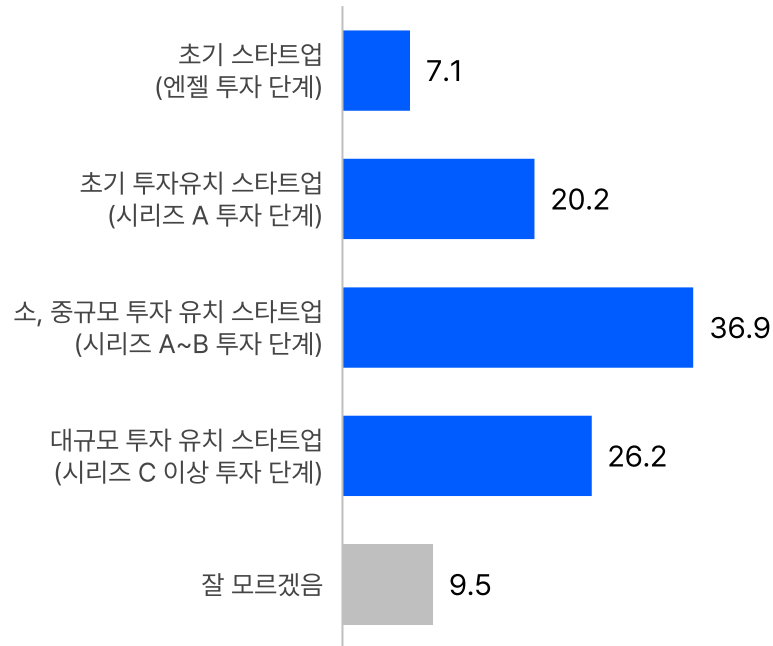
취업 고려 스타트업 단계 및 희망 분야

취업준비생이 취업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은 시리즈 A~B 투자 단계 이상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고려하는 취업준비생의 36.9%는 시리즈 A~B 투자 단계의 기업을, 26.2%는 시리즈 C 이상 투자 단계의 기업을 선호합니다.

취업 희망 스타트업 분야로는 콘텐츠/미디어 분야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습니다.

취업 고려 스타트업 단계



취업 희망 스타트업 분야



[Base: 스타트업 취업 고려자 (n=84),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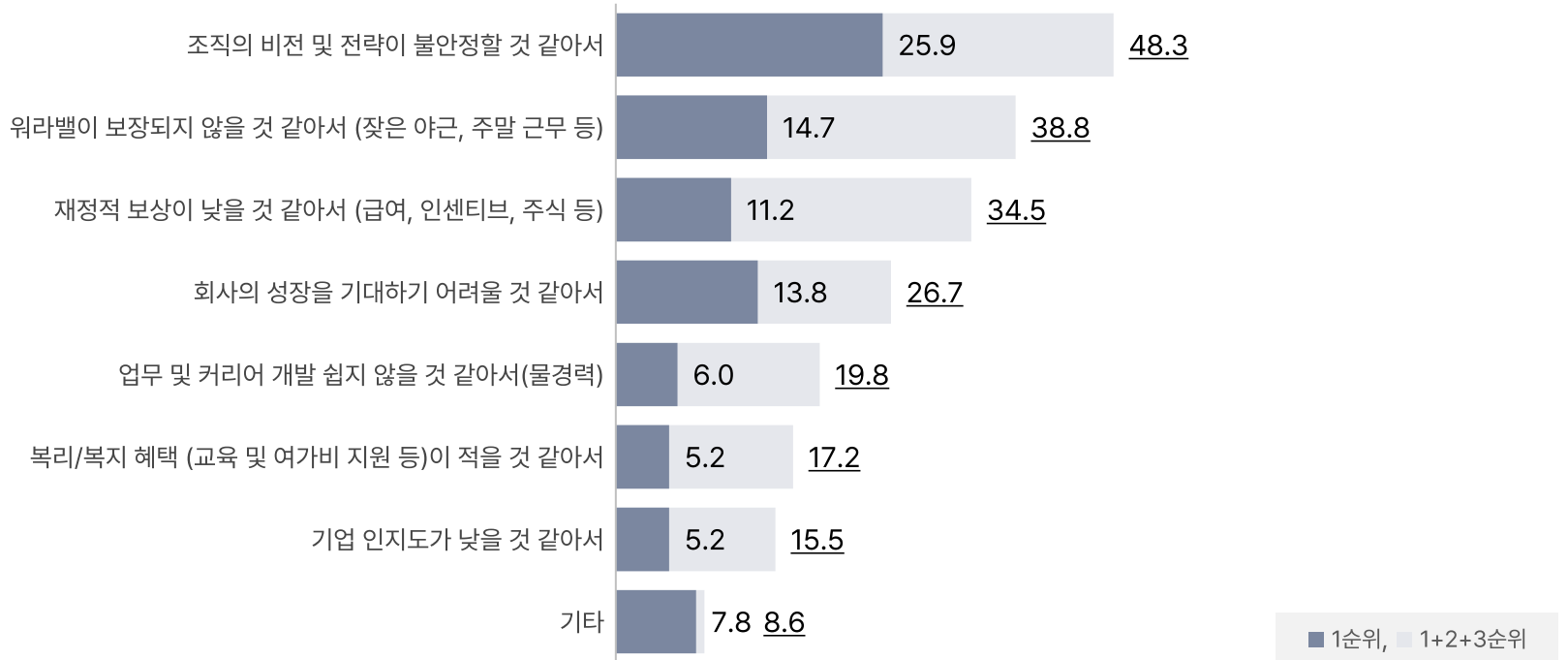
*취업 희망 스타트업 분야: 1+2+3순위 기준 * 10% 미만 응답 절삭

Q.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으로의 취직을 고려하셨나요? / 어느 분야의 스타트업에 취직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스타트업 취업 비고려 이유

불안정한 조직 비전/전략, 워라밸 비보장, 낮은 재정적 보상, 성장 기대 어려움 측면은 스타트업 취업의 주요한 hurdles로 나타남

취업준비생이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성', '워라밸 비보장 예상', '낮은 재정적 보상 예상', '회사의 성장 기대 어려움' 측면이 응답되었습니다.



[Base: 스타트업 취업 비고려자 (n=116), Unit : %]
* 1+2+3순위 응답 기준 8% 미만 응답 절삭

Q. 스타트업으로의 취직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이슈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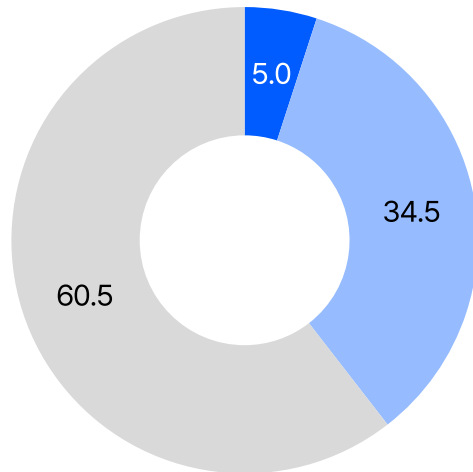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를 처음 들어보나, 인지 후에는 스타트업 취업에 영향을 받음

60.5%가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이슈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했으며, 알고 있더라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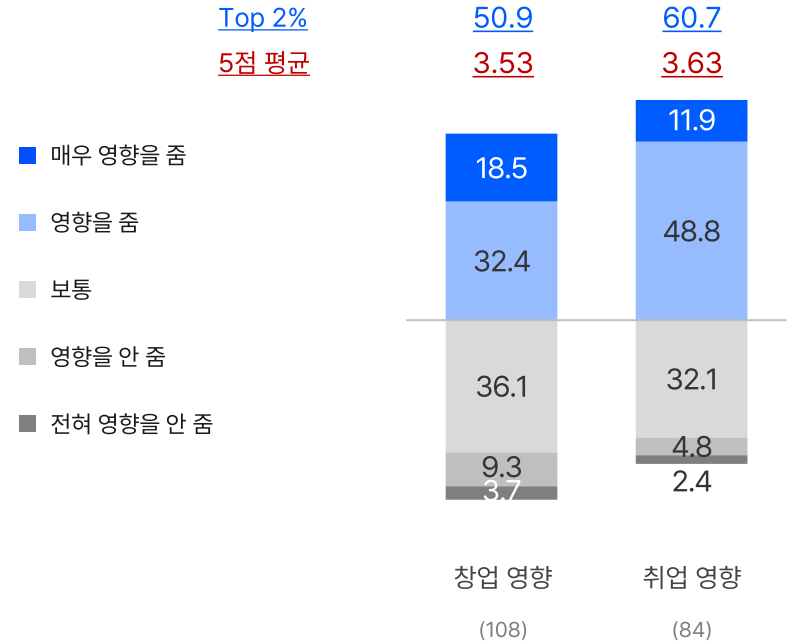
창업을 고려한 취업준비생의 50.9%가 창업에, 스타트업 취업 고려자의 60.7%가 창업에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가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인지

- 자세히 인지
- 인지, 자세히 알지 못함
- 비인지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 근무/창업 영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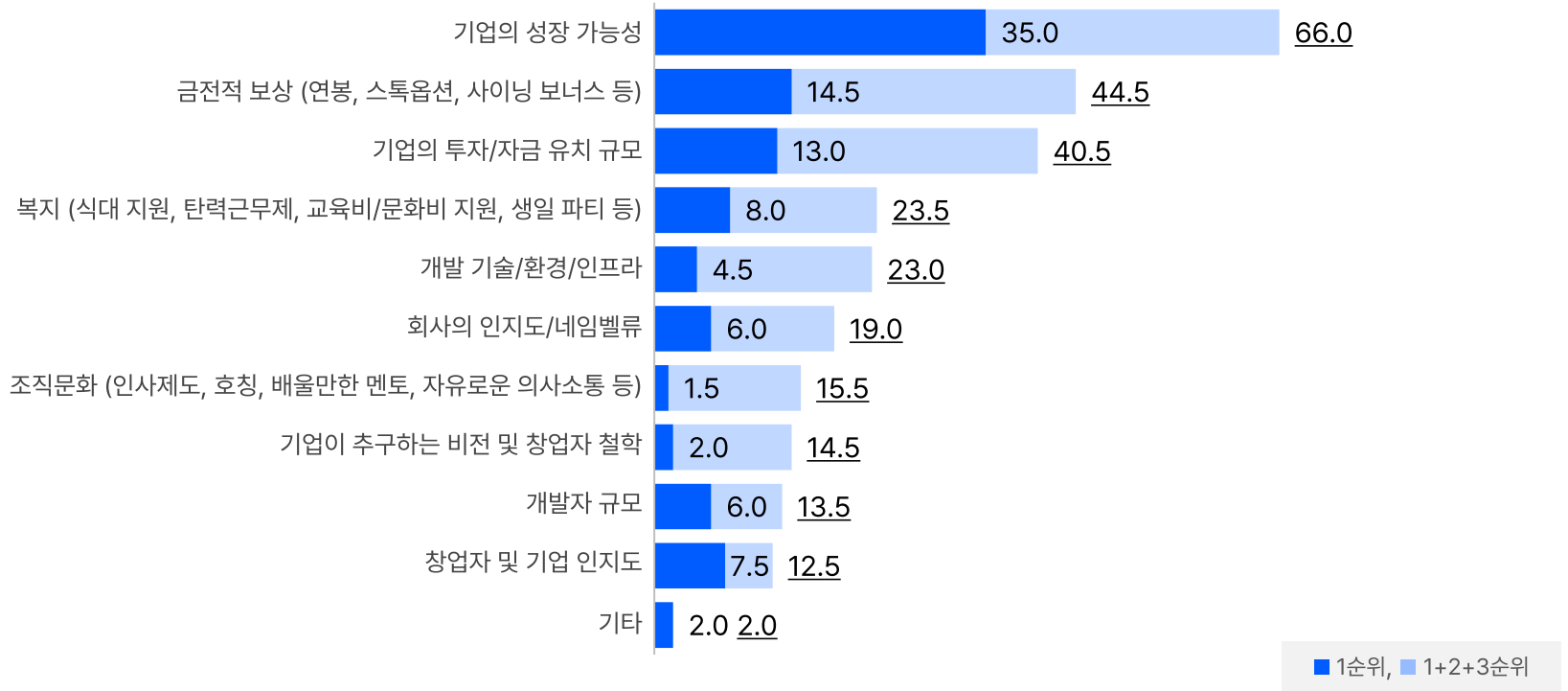
[Base: 취업준비생 (n=200) / 창업 고려자 (n=108), 스타트업 취업 고려자 (n=84), Unit : %]

Q.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는 귀하의 창업/스타트업 취직 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로 인한 스타트업 취업 고려 영향 요소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 지속 시 취업준비생은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

취업준비생들은 벤처투자 흑한기 이슈로 인해 스타트업 취업 고려 시, 기업의 성장 가능성, 금전적 보상, 투자/자금 유치 규모를 보다 면밀히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ase: 취업준비생 (n=200), Unit : %]

Q. 최근의 벤처투자 흑한기로 인해 취직 시 특별히 더 고려하시게 될 요인이 있을까요?

opensurvey

**‘데이터의 새로운 미래’,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기업 오픈서베이**

오픈서베이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부터 시대를 대표하는 유니콘
스타트업들까지 오픈서베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생태계 구성원들을 연결하기 위해
2014년 출범한 민간비영리기관입니다.**

창업가 및 생태계 구성원을 이어주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국내외 생태계 소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
균형잡힌 생태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리서치 활동 등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Start-up Trend Report 2022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2

본 리포트는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기업 오픈서베이와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공동 발행합니다.

리포트 담당 업무 범위

오픈서베이: 프로젝트 설계,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대상 설문조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프로젝트 설계, 최종 보고서 감수

리멤버: 창업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Pool 제공